



[뉴스]
‘핑크 난’ 한국타이어
3세 리스크에
실적 곤두박질
02



Economy

코스피	2208.88 (-33.29)	코스닥	682.92 (-9.67)
금리 (연고채 3년)	1.27 (-0.05)	환율 (USD-달러)	1189.50 (+5.60) (18일)



독자개발 위성 ‘천리안 2B호’ 우주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2B호’가 오는 19일(한국시간)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된다. 위성은 앞으로 3만6000km 상공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며 미세먼지의 이동과 적조·녹조 현상을 담은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사진은 천리안 2B호의 개발 과정을 담은 모습. /연합뉴스

분양 회사 번돈으로 한진칼 매입 반도, 1600억 출처 내부거래 의혹

‘땅콩 연합’ 도덕성 논란
사업확장·주식처분 등
그룹개선보다 잣밥 관심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KCGI(강성부 펀드), 반도체설과 손잡고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를 문제 삼던 KCGI와 단순투자만 하겠다던 반도체설이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두고, 지배구조 개선보다 ‘잣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부사장 6.49%, 조현민 전무 6.47%, 이명희 고문 5.31%, 재단 등 특수관계인 5.15%로 구성돼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KCGI 투자 목적의 그레이스홀딩스 17.3%와 반도체설 8.28% 지분을 합하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성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면 32.06%이다.
◆반도체설, 분양 수익 한진칼에 모두 투자

18일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반도체설은 한영개발 대호개발 반도체개발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늘려왔다. 지분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계열사는 한영개발(3.82%)로 지분을 인수하는데 715억원을 투입했다. 대호개발은 지분 3.62% 매입에 684억원을 투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설립시기(2012년 7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시기가 같다는 것. 이들은 주택경기 호황을 업고 대

규모 아파트 개발을 통해 3억원의 자본금을 시작으로 수 천억원의 분양대금을 끌어왔다.

한영개발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반도체유보라메이플타운 2.0을 개발해 2016년 8월 분양했다. 미분양 대금은 2018년 12월 기준 4억 2500만원으로 분양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매달 들어오는 분양대금은 2017년 2454억원, 2018년 1575억원이다.

한영개발의 2018년 12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억원으로 2018년 당기순이익 474억원을 합치면 488억원이

다. 여기에 입주 시작 뒤 유입된 분양미수금 1117억원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15~20% 수준의 현금을 확보(167~223억원)했다면 최대 708억원이다. 한진칼 지분 매입(715억원)에 보유 자금을 모두 쏟아부은 셈이다.

대호개발도 울산 북구 송정동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를 2016년 12월 분양했다. 총 1162가구로 분양대금은 총 4475억원이다. 분양 시작 이후 유입되는 분양대금은 2016년 14억원, 2017년 1850억원, 2018년 2372억원, 2019년 926억원이다.

대호개발의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6억원으로 2018년 당기순이익 448억원을 합치면, 504억원이다. 여기에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최대 6개월에 걸쳐 유입된 분양미수금 976억원 중 비용을 제외한 15~20% 수준의 현금을 확보(146~195억원)를 확보했다면 최대 699억원이다. <3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社告 수습기자 채용 오늘 마감



미디어의 새 길
메트로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의 합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지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매체 다변화 시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지면의 동시발행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 인공지능(AI) 도입 등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는 독자들하고 함께 하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18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수습기자 채용 안내 -
- 모집부문 : 취재(뉴메트로 공채 6기 수습기자)
 - 모집내역 : ①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취재 역량평가 ▲3차 :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 0명
 - ③ 응시자격 : 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20년 2월 4일(화) ~ 2020년 2월 19일(수)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월 19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문로 17길18(옥인동) ㈜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월 21일(금)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청정지역 대구서 ‘코로나’ 환자 31번째... ‘슈퍼전파자’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영남권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61세 여성(서구 거주)은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4면>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튿날 수성구 범어동 한방병원(새로난)에 입원했다. 입원 전인 지난 6~7일은 동구 소재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과 16일에는

남구 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도 참여했다. 15일에는 지인과 동구에 있는 호텔(퀸벨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대응팀 12명을 대구에 파견해 대구시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31명 환자의 상세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공간 폐쇄, 접촉자 격리 등을 할 계획이다.

31명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환자가 지역 중형 병원, 교회, 호텔 등을 거쳐 가고 대중교통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슈퍼전파자’ 우려도 제기된 다. /이세경 기자 seilee@

‘조현아 연합’ 흔들... 김치훈, 사내이사 후보 ‘사퇴’

“본인 의도와 다르게 진행
경 영진 지지하는 입장”

‘반 조원태 연합’이 동승한 배가 벌써부터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진칼은 1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 펀드), 반도체설 등 ‘3자 연합’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김치훈 전 상무가

지난 17일 보낸 서신을 통해 “3자연합이 본인을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3자연합이 추천하는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3자연합이 주장하는 주주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본인의 순수한 의도와 너무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KALM AN으로서 한진그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동료 후배들로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화합함으로써 한진그룹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진그룹 정 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은 오는 3월 25일께 열릴 예정인 한진칼 주주총회 이전, 주주제안과 함께 사내·사외이사 추천 후보를

공개했다. 사내이사과 사외이사 각 4명, 총 8명으로 김치훈 전 대한항공 상무는 사내이사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그러나 단 4일만에 본인 의사와 다르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밖에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중국총괄 부사장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기타비상 무이사 후보) 등이 사내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핑크 난’ 한국타이어... 3세 리스크에 실적 곤두박질

(조현범 사장 구속)

지속 투자에도 2년연속 수익 급감
영업익 5400억, 2016년의 반토막
배당성향은 2년만에 두배로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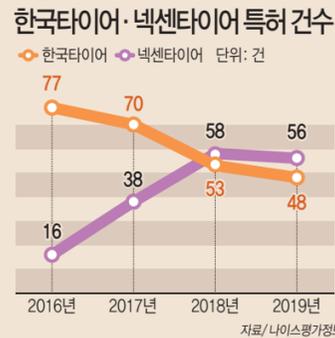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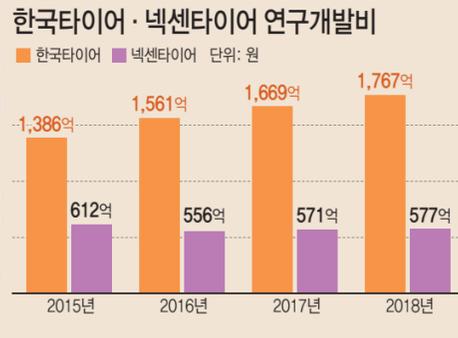
경쟁사 금호, 3년만에 ‘흑자전환’
넥센타이어는 영업익 20% 성장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글로벌 톱티어’에서 멀어지고 있다. 2년 연속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성과는 뒷걸음질 중이다. 오너 일가의 부정과 고배당 정책에도 비판이 잇따른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매출액 6조8964억원에 영업이익 54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6조7951억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2017년(6조812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매출액을 보면 정체된 상황이다.

특히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전년(7027억원)보다 22.7%, 2017년(7934억원)보다는 31.6% 쪼그라들었다.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한 2016년(1조1032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이다.

당기순이익도 감소를 면하지 못할 전



망이다. 2015년 6565억원에서 2016년 8791억원으로 늘었지만, 2017년 6055억원에서 2018년 5222억원으로 축소하는 양상이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시장 침체를 실적 악화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최근 타이어업계는 자동차 시장 둔화와 유통 다변화를 통한 경쟁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역성장애 빠진 것은 아니다. 당장, 국내 브랜드인 금호타이어가 영업이익 373억원으로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넥센타이어도 전년보다 20% 가량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후발주자들의 공세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다.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 타이어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개발 분야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는 48건으로 전년(53건)보다 5건이 나뉘었다. 2018년에는 전년(70건)보다 24.3%, 2017년에는 전년(77건)보다 10% 적었다.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8년 1767억원, 2017년 1669억원, 2016년 1561억원 등 개발비용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만 봐도 2018년 5.53%, 2017년(5.11%)과 2016년(4.71%)에 이어 적지 않게 늘었다.

반면 넥센타이어는 연구개발비에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특허출원 건수로는 한국타이어를 앞지른 상태다.

2018년 577억원, 매출액 대비로는 3.65%만 투자했으면서 특허출원은 58건이나 됐다. 전년(38건)보다 52.6%나 늘리면서 한국타이어를 처음 따라잡았다. 2019년에도 56건으로 한국타이어보다 더 많은 특허를 획득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6건으로 한국타이어(1건)보다 빠른 출발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에 있던 주요 인력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8년 기준 47.14%로 넥센타이어(48.88%)보다 낮

다. 2016년에는 39.16%로 넥센타이어(47.29%)와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만큼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면서도 3세 승계 구도를 본격화한 후 배당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배당 성향이 2016년 5.7%에서 2017년 8.3%, 2018년 10.5%로 2년만에 2배로 뛰었다. 앞으로도 10~15% 가량 배당 성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너리스크도 심각하다. 한국타이어는 2018년 국제청으로부터 조현범 사장 등 오너 일가의 증여세 포탈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으며 업무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조 사장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구속되면서 선장을 잃은 상태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비상한 상황’... 선제 대응을”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까지 경제 지표를 ‘대체로 괜찮은 상황’으로 봤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보이자 비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 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

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18일)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산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 기업의 투자 활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경영악화’ 두산중, 5년만에 구조조정

45세 이상 직원 명예퇴직 신청받아 법정 퇴직금 외 위로금 등 지원키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두산중공업은 18일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명예퇴직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며,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공장.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두산중공업 역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업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 풍력, 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다”며 “특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은행 대출 연체율 0.36% ‘사상최저’ 수준

금감원, 지난해 말 정리규모 3.3조
신규 발생액 1.2조... 잔액 2조 감소

지난해 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6%로 전월 말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신규 연체 발생액 1조2000억원을 웃돌면서 연체채권 잔액이 2조원 감소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50%, 중소기업대출 0.44%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15%포인트, 0.18%포인트 낮아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0.29%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0%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0.41%로 전월 말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손실 가능성 0% 라더니”... 로펌선 ‘100% 배상’ 유혹

(투자설명서 문구)

라임사태, 속 썩는 투자자

투자자 ‘불법판매’ 의혹 제기
 줄소송 국면에 장기화 우려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 기대
 금감원, 내달 정식검사 착수

손실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펀드가 반토막이 났다.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 ‘불완전 판매’를 넘어 ‘불법 판매’를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이 포착된 만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배상안을 내놓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 D증권 반포WM센터에 감사역을 보내 정식 검사에 착수한다. 반포WM센터는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지점으로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센터에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D증권을 대상으로 100% 배상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루토 FID-1호 관련 언급	
2018년 D증권 반포WM센터	“상환 능력 검토, 대출 사유 확인, 담보력 확보, 추가 정치 마련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출 X” “선순위 LTV 50~60%”
2019년 10월 14일 라임자산운용 기자회견	“일부 사모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리금 상각이 이뤄짐” “선순위 수익증권에서도 손실 발생” “사모 금융상품은 상장 금융자산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장내매각 등을 통한 일반적인 자산 유통화가 용이하지 않음” “성공적으로 밀 유동화, 매각 되었을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40~50%, 내년 연말까지 약 70~80% 자금 회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
2020년 2월 14일 삼일회계법인 실사결과	“A급 자산 전체 23.8%, B와 C는 73.8%” “예상회수율 범위는 50%~68%”

◆“손실 가능성 0%라더니”

지난 2018년 D증권 반포WM센터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설명회에서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조정해 뒀다”고 설명했다. 투자 설명서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대출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피해자 A씨는 “라임자산운용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을 만큼 담보가 돼있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했다”면서 “연 8% 수익에 운용사의 이익을 일부 나눠 연 1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1년간은 연 8%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판매 리스크가 불거진 2019년 10월, 라

임자산운용의 설명은 조금 달라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준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는 ‘플루토 FID-1호’ (플루토)에 대해 “일부 사모사채의 기한이익 상실로 원리금 상각이 이뤄졌고, 선순위 수익증권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40~50%, 내년 연말까지 70~80% 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 가능성 0%’ 펀드에 30%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더 참담했다. 플루토 펀드에 들어 있는 자산의 등급을 매긴 결과 부정적 요소가 없는 A급 자산은 전체의 23.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예상 회수율은 절



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만기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만기 연장을 요청한 기업, 채권 회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소당한 기업 등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소송 보단 조정”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불법 판매’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3~5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대부분 자산의 만기가 돌아와 손실액을 확정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들의 형사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감원이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들고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만큼 라임 펀드의 보정률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물론, 판매사와 투자자 간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절차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피해구제 방안은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과 내·외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최대 100% 반환, 배상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바 없다”고 밝혔다.

/손업직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IFRS17 도입’ 1년 더 연기... 시간 번 보험사 “재무구조 개선은 표면적 명분 불과”

내달 이사회서 도입시기 변경 논의
 EU 연장 강력요구에 재연장 가능성
 1년 추가연장 땀 보험사 한시름 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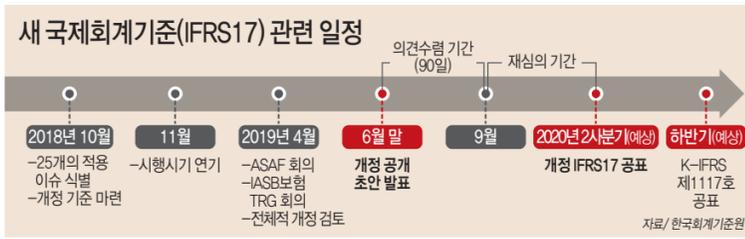
2022년으로 연기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다음달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재연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 IFRS17 시행 시기가 2023년으로 늦춰지면 국내 보험사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 재연장 관련 안전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할 목적으로 세계 각국이 협력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IFRS 재단 산하 기구다. IASB 이사회는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온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IASB는 2018년 11월 이사회를 열고 IFRS17의 도입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IFRS17 ‘보험계약’의 공표 후 시행시기(2021년 1월)까지 3년 반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IFRS17 글



로벌 협의체들은 2021년으로 예정된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해야 한다고 IASB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IASB는 1년 연기만 받아들였다.

이후 IFRS17 글로벌 협의체는 한 달 후인 2018년 12월 곧바로 ‘1년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공동 서한을 IASB에 제출했다.

업계는 IFRS17 도입 재연장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종기준서가 발표되면 유럽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려 2022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은 IFRS17처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Solvency) II’를 2001년부터 16년간 준비를 거쳐 시행 중이다.

IFRS17 도입 시기가 1년 더 연장될 경우 회계 인력 확보, 시스템 마련, 자본확충 등의 부담이 컸던 국내 보험사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면서 요구 자본이 늘고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또 전산뿐 아니라 회계·계리 분야의 전문인력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IFRS17을 전면도입하기로 한 나라여서 부담이 더 크다. 전면도입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4~5개국에 불과하다. 유럽국가도 부분 도입을 논의 중이다.

IFRS17 도입이 연기되면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IASB 이사회에 IFRS17 도입 재연장 관련 안전이 상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단기 과제라 아니기 때문에 각 협회, 보험사, 한국회계기준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1년 ‘분양 회사 번돈으로’서 계속

한진칼 지분 매입(684억원)에 대부분을 투자한 셈이다.

한영개발과 대호개발 모두 지난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된 후 한 달 뒤인 지난 10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였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반도건설이 캐스팅보트역할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업체인 만큼 한진그룹이 보유한 토지개발 등 부동산 관련사업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 한진칼 지분을 본격적으로 매입할 2018년 당시에는 고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의 인연을 고려하더라도 10%에 근접했다는 것은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다.

◆KCGI, 주식 고가처분 위한 셈법?

한진그룹의 경영과 오퍼리스크를 지적하며 지분을 늘려온 KCGI도 잭팟에 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KCGI가 지적한 대주주일가의 갑질·횡령 문제의 중심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CGI는 한진칼 주식 615만4933주(발행주식의 10.4%)를 담보로 1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빌린 상태다.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만기연장을 거절당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발을 돌린 데 따른 결과다.

통상 증권사 대출금리는 5~6%대이고 저축은행은 8~10% 대 이상이다. 대출금리가 8%, 대출액을 1000억원이라 하더라도 매년 80억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KCGI입장에서 장기투자가 아니



서울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손진영 기자 son@

라 단기에 올려 빠져야 이자비용을 제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KCGI, 반도건설이 한진그룹의 경영방식을 혁신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주장은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라며 “실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한 계획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진그룹 노조 3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해 KCGI, 반도건설을 비판했다. 한진그룹 노조는 “투기 펀드에 몰려든 돈을 불러 가진 자의 배를 불리고자 혈안이 된 KCGI의 한진그룹 공중 분할 계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도건설은 상도덕을 지키고 본업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택배·배달... 지역 밀착형 생활플랫폼 자리매김

편의점 시대

편의점만 있으면 24시간 OK

CU 24시간 무통장 송금 서비스
GS25 은행 업무협약, 금융 강화
이마트24 요기요 통한 배달진행
세븐일레븐 생활·위생용품 배달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왼쪽)이 김종수 GS리테일 MD본부장(오른쪽)과 MOU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25



이마트24는 올 초부터 전국 35개 직영점에서 요기요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마트24



CU는 지난해 4월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BGF리테일

편의점이 1인가구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생활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택배,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없이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문 닫아도 걱정 없어

CU는 송금 애플리케이션 '센드(Send)'와 손잡고 24시간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센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앱에 받는 사람 계좌를 입력하면 송금 바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점포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액수를 현금으로 전달하면 입금이 완료된다.

해당 서비스는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로, 기존 송금 앱과 달리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는 외국인과 청소년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특정 시간에 문을 닫는 은행과 달리 365일 24시간 전국 CU에서 이용 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이다.

GS25도 여러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금융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SC제일은행과 함께 ATM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확대했다. GS25는 총 점포 중 85%가량인 전국 1만1800여 점포에서 ATM을 운영 중이다. 이는 업계 최대 수준으로 지난해 한해 입출금 및 이체 금액은 총 6580만 건, 연간 거래 금액은 11조 원

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SC제일은행과의 제휴로 GS25에서 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 KB국민, 우리, 광주, 저축은행중앙회, K뱅크, 카카오�뱅크 등 8곳으로 늘었다.

GS25는 생체 인식 기능과 함께 계좌개설, 카드 발급 등 비대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ATM'도 현재 3600대에서 올해 500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달 시작하니까 매출도 ↑

편의점은 최근 배달 격전지로 떠올랐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편의점들이 앞다투어 배달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CU는 지난해 4월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 분기별 평균 22%로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 서비스 가능한 점포도 지난해 7월 기준 2000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3000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5000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GS25도 허니비즈 펄프, 요기요와 제휴해 상품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츠와 손잡고 배달영역을 확대한다. GS25와 쿠팡이츠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강서·관악·광진·서대문구의 7개 직영점에서 과일 텃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마트24도 올 초부터 전국 35개 직영점에서 요기요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역시 이달 초 먹거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대표 배달앱 '요기요'와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 메시코리아 '부릉'과 제휴해 도시락, 디저트, 즉석푸드, 가정간편식(HMR), 생활 및 위생용품 등 330여종 상품에 대해 배달 서비스를 진행한다. 여기에 수산물 전문 O2O 서비스 스타트업 '바다드림'과의 제휴를 통해 '회 주문접수 서비스'를 시작했다.

업계관계자는 "인구구조변화가 편의점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 외에 1인가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가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데다 접근성이 좋고, 취급하는 상품, 서비스도 많은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코로나 새 국면 진입... 2차, 3차 감염 대비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29·30·31번 환자 감염원 파악 중
우한발 감염자 통해 다른 유행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할 때 코로나19 발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에서 어제와 오늘 여행력이 없는 환자가 3명 나왔고 아직은 역학적 연관성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많은 검사를 시행하면 유사한 환자가

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태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최초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와 환자의 지인들, 밀접접촉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었다가 2월 중순경부터는 지역사회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우한발로 시작된 유행이 2차, 3차 감염자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유행으로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29·30·31번 환자 ‘감염원 파악중’

보건당국이 최근 잇따라 확진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환자의 감염원 추적 조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29·30·31번 환자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 발병일 기준 2주간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들이 2주간 지역사회에서 국외 위험지역에서 왔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적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분들의 잠복기를 봤을 때 2주 안에 어떤(감염원) 노출이 있었는지 보기 위한 조사”라며 “(2주라는 기간은) 무증상 감염 부분과 관련 있는 설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접촉자 가운데) 몇분은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어르신이다 보니 기억에 의존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세부적 동선은 위성항법장치(GPS)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엔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해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코로나 예방수칙 위반 유학생에 불이익”

교육부 대학 가이드라인 추가
단계별 관리방안·휴학권고 등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유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위반한 유학생에게 학교가 불이익을 주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18일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의 단계별 관리 방안과 미입국 유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등이다. 그동안 유학생 관리를 대학 자율로 하면서 대학별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은 본부차원에서 총고라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유학생 입국 전부터, 입국시, 입국후까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학사사항, 생활지도,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하고, 지자체와 유관기

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학생 건강 보호와 감염증 차단을 위한 협력을 추진토록 했다.

입국전에는 주요 학사사항과 등교금지 방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입국 예정일과 기숙사 이용 등 숙박계획 등을 확인토록 했다. 입국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엔 1학기 원격수업을 적극 안내하고 휴학도 권고하도록 했다.

입국 시에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국내 거주지 재확인 등 우선이나 문자 연락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입국했다면 14일간 등교중지도록하고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숙사 입실은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배정하고 1인1실 배정, 도시락 제공, 세탁물 수거와 개별 세탁 등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한용수 기자 hys@

코로나사태 메르스 넘어서... 마스크 매출 67.6% ↑

CU 감염병 유행기간 상품매출 분석
소비자들 코로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
중 대규모 감염사태에 학습효과 작용



고객이 CU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BGF리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CU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기준 약 한달(1월 20일~2월 16일)간 주요 상품들의 점당 평균 매출을 메르스 때 같

품이 된 마스크의 올해 매출이 67.6%나 더 높았다.

같은 호흡기 감염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올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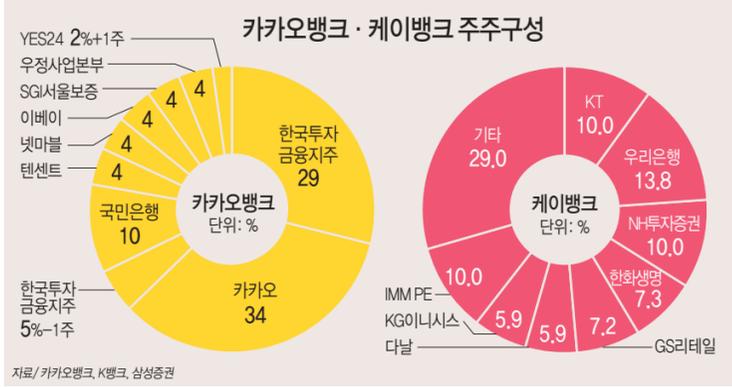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당시 약 20%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과 최근 중국의 대규모 감염사태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원선 기자

개점휴업 K뱅 운명 가를 26일 法 통과시 KT 자본 수혈 가능

삼성생명 순익 40% 감소 일회성 요인 감안 700억 ↑



26일 임시국회서 정상화여부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요건 제외 골자 심사중단 사유 해소시 심사 재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의 예정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정상화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된다.

운명의 날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된 오는 26일이다.

당초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될 당시만 해도 정상화 기대감이 높았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법사위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제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가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소수의 의원만 반대의견인 만큼 표결로 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결과를 예단하긴 힘든 상황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사위가 26일로 예정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실제로 운용하다 보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부분에서 발목이 잡혀서 은행인가를 내주겠다고 해도 새로운 참여자가 안나오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기존 취지를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영업 시작 초기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 대출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을 34%로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심사 중단으로 276억원의 브릿지 증자만 이뤄졌다.

케이뱅크는 여러 증자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역시 KT의 자본 투입이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케이뱅크가 출범 이후 내내 시달렸던 자본난도 한 번에 해결된다.

카카오뱅크는 원활한 증자로 자본금을 1조8000억원까지 늘렸지만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자본력 격차는 그대로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1100만명을 넘어섰고, 수신과 여신액은 각각 20조7000억원, 14조9000억원(잔액기준) 규모다.

반면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2만명이다. 수신과 여신은 각각 2조1600억원, 1조3800억원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따라 순익 ↓ 중저가상품 등 신계약 늘어 평가 무난

삼성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0% 가까이 줄었다. 이는 2018년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요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전년 대비 695억원 증가한 셈이다.

18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516억원으로 전년(1조7337억원) 대비 39.3%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2018년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요인(7515억원)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95억원 늘어난다.

매출액은 31조8040억원으로 전년(32조2408억원) 대비 1.4%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5833억원에서 1조5266억원으로 51.5% 감소했다.

생보업계는 저금리·저출산·저성장장의 '3저 현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확정 고금리 상품으로 인한 여담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지난해 중저가 상품,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해 신계약이 늘면서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은 올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신사업, 신시장을 찾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올해 5대 목표로 ▲견실한 손익기반 확보 ▲'질(質)과 효율' 중심의 영업문화 ▲고객 만족과 상품채널 혁신 ▲신사업 발굴 및 신시장 개척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정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보험설계사 영업 본부를 돌로 나누고 사업부를 해체하는 등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기존에 단일 조직이던 FC영업본부를 1본부, 2본부로 나눈다. FC1~4사업부는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기업 영업을 담당하는 전략영업본부도 재편하기로 했다. 단일 조직이었으나 1, 2본부로 이원화된다. 전략영업본부는 개인고객을 상대하는 FC영업본부와 달리 기업거래(B2B)를 맡고 있다.

분위기 반전도 꾀한다. 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자산운용에 특화된 전영목 삼성자산운용 대표(부사장)가 이끌어 간다.

전 신임 사장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금융권 전반에 걸친 경력을 쌓으며 금융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인목을 갖춘 인물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삼성생명 본관

온라인투어
www.onlinetour.co.kr
상담문의 1544-3663

터키일주(직항) 특급호텔 8/9일
699,000~ 2/21~ [선착순 특가]

유럽 단체 / 조기예약 할인진행 02) 3705-8150

발칸 2국/동유럽 4국(2대 야경+아울렛) 9일
1,290,000~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지브롤터 12일
1,690,000~

서유럽 3국 9일
1,299,000~

서유럽 3국 10일
1,790,000~

서유럽 4국/10/12일
1,890,000~

이집트 완전원주 10일
1,899,000~

동유럽 핵심 3국 7일
999,000~

발칸/동유럽 11/12일
1,390,000~

그리스/터키일주 9일
1,290,000~

스페인/포르투갈 9일
1,599,000~

동남아 단체 / 조기예약 할인진행 / 공동구매 항공권 가능 02) 3705-8100

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298,000~

방콕/파타야/바나절자유 5일
418,000~

푸켓/변화기워터 특급리조트 5일
498,000~

라오스/비엔티엔/방비엥 5일
448,000~

차양마이/차양라이 5/6일
438,000~

호주/뉴질랜드 부산/대구 출발가능 (*별도문의) 02) 3705-8140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998,000~

시드니/센트럴코스트/포트스탠 6일
1,049,000~

미주/하와이/중남미 부산 출발가능 (*별도문의) 02) 3705-8180

시애틀/캐나다 로키 7일/8일
1,049,000~

미들부캐나다(폭포부속박) 10일
1,990,000~

남미(미과수/우유니) 4국 11일
5,490,000~

02) 3705-8140

보라카이/세일링보트/마사지 4/5일
348,000~

세부/전신마사지 4/5일
238,000~

코타키나발루/선셋반딧불 5일
388,000~

02) 3705-8140

사이판 PIC리조트 골드 4일/5일
589,000~

괌 PIC리조트 골드 4/5일
699,000~

02) 3705-8120

일본

벳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249,000~

오사카/나라/교토 3일
299,000~

북해도 소운코 비에이 4일
699,000~

NONO 패키지 안해서 행복한 여행 NO 팁 · NO 옵션

괌 사이판

괌 웨스턴 호텔 4일/5일
789,000~

사이판 피에스타 5일
769,000~

남태평양

뉴질랜드/시드니 10일
2,190,000~

뉴질랜드 남북섬 9일
2,390,000~

동남아

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1,038,000~

싱가포르/센토사/오전자유 5일
1,698,000~

나트랑/프리미엄 5일
979,000~

브루나이/7성급 호텔 4일
1,199,000~

하노이/하롱베이/옌뜨 5일
848,000~

보라카이/5성급리조트 4/5일
748,000~

유럽

서유럽 4국/파리야경 10일
2,690,000~

동유럽+발칸 6국 11일
1,990,000~

미주 특수

하와이(관광/자유) 6/7일
1,290,000~

중남미(6국/멕시코+쿠바) 18일
9,790,000~

■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하는 가사, 가이드경비, 0003로 표제(상세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 ■ 여행상품 가격표에 포함: 유류할증료(항공권/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필수 경우 모두 포함 ■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가능(*510~5300달러),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참여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onlinetour.co.kr)

“고객의 가슴을 뛰게 하라”... 구광모 ‘디자인 경영’ 고백

(LG 대표)

서초 ‘디자인 경영센터’ 방문
올 첫 현장경영 키워드 디자인
각 사업부문 인재 만나 격려
개방적인 조직, 다양성 등 당부



구광모 LG 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 R&D 캠퍼스 ‘디자인경영센터’를 방문, 미래형 커넥티드카 내부에 설치된 의류관리기의 고객편의성 디자인을 살펴보고 있다. /LG

구광모 LG 대표가 고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현장경영에 돌입했다.

18일 LG에 따르면 구 대표는 17일 오후 LG전자 서초 R&D 캠퍼스 ‘디자인 경영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데 가장 첫 단계인 디자인 분야 경쟁력을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고객 가치 실천을 위한 행보다.

구 대표는 고객 시선을 사로잡고 가

슴 뛰게 하며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 개방적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철저하게 고객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고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디자인 요소를 확인했다. 스마트도어와 벽밀착 올레드 TV, 커넥티드카와 디지털 콕핏 등이다.

구광모 대표는 “디자인은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 첫 인상을 받고 사고 싶다는 가치를 느끼는 처음 순간이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내내 섬세한 배려와 편리함에 감탄하고 고객을 돌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도 디자인일 것”이라며 “디자인이야말로 고객 경험과 감동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디자인 담당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했다.

이날 구 대표 방문에는 LG전자 노창호 디자인경영센터장과 각 사업부문 디

자인 연구소장, 상품기획 담당과 책임급 사업가 인재들이 함께했다.

노창호 센터장은 구 대표에 고객의 페인 포인트 등 핵심 가치를 디자인적 요소로 반영하고, 고객 가치 기반 디자인이 최종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디자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디자인 전략 방향도 설명했다.

구 대표는 참석한 리더들에 고객 감동 품격을 높여달라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LG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경영센터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고, 향후 국내외의 고객 접점 및 미래준비 현장을 순차적으로 찾아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실속형 스마트폰 맞아?’... 카메라 4개 탑재

LG전자 실속형 스마트폰 3종 선배
2분기부터 중남미·유럽 순차 출시
6.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



(왼쪽부터)LG K61, LG K51S, LG K41S. /LG전자

LG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3종을 올해 2분기부터 중남미 및 유럽 지역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실속형 스마트폰 3종 LG K61, LG K51S, LG K41S 후면에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등 렌즈 4개를 탑재했다. 특히 LG K61 4800만 화소, LG K51S 3200만 화소, K41S 1300만 화소 표준 렌즈를 각각 장착,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대등한 카메라 성능을 갖췄다. 실속형 3종에 공통으로 탑재된 접사 렌즈를 사용하면 3~5cm 거리의 가까운 피사체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LG전자는 실속형 3종에 6.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전면 베젤을 최소화했다. 전면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도 줄였다. 이를 위해 LG K61, LG K51S에는 ‘편지홀’, K41S는 ‘V노치’ 스타일 디자인을 적용했다.

LG전자는 실속형 3종의 배터리, 음향, 내구성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함과 동시에 멀티미디어 기본기도 향상시켰다.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동영상 시청, 웹서핑 등 전력 소비가 많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배터리 걱정을 덜었다.

입체 음향의 강점은 그대로 계승했

다. 실속형 3종은 DTS:X 3D 입체 음향 기능을 탑재, 최대 7.1채널의 영화관 같은 고품격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이외에도 실속형 3종은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인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 내구성도 강화됐다. 이 표준은 군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저온(포장상태·비포장상태), 습도, 고온(포장상태·비포장상태), 진동, 분진, 방수 등을 테스트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헬로비전,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기존 30%대→99%로 끌어올려
LGU+와 협업으로 시너지 발휘

LG헬로비전의 권역 내 케이블 기가 커버리지가 99%까지 확대됐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와의 협력으로 케이블 기가 커버리지를 확대해 기가인터넷 확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인터넷 망을 임차해 기가 인프라를 추가 확보해 안정적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기가인터넷을 시작으로 양사 시너지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으로 LG헬로비전은 기존 서비스 권역 내 기가 커버리지를 99%까지 끌어올렸다. 케이블 특성상 케이블 광·동축케이블 복합망(HFC) 인터넷에 주력했던 LG헬로비전은 기존 30%대였던 기가 인프라를 개선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헬로비전은 99%의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기가인터넷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방송·인터넷·모바일 결합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기가인터넷을 주력 상품으로 성장시켜 케이블TV의 재도약을 견인하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G헬로비전의 기가인터넷 상품은 통신사 대비 최대 36%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기가인터넷과 초고화질(UHD) 방송을 결합한 주력 상품의 3년 약정가는 2만원대로, 동일 품질의 통신사 상품과 비교해 1만원 이상 저렴하다.

통신사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 동등결합을 통해 인터넷 요금의 20%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등결합은 통신 3사의 휴대폰과 LG헬로비전의 인터넷을 결합하면,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을 각각 할인 해주는 제도다. 통신 3사는 자사 유·무선결합과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고, LG헬로비전은 추가로 20%를 할인해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5G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베스트 오브 구글’ 프로모션
6개월간 혜택, 27일부터 신청
삼성 ‘갤럭시 S20’부터 적용



LG유플러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구글과 손잡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비디오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고객(20대~40대 초반)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과 홈 서비스 부문에서 구글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베스트 오브 구글’ 프로모션을 5G 가입자에게 최대 1년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 원 유료멤버십을 각각 최대 6개월간 무료 체험할 수 있고, 구글플레이 포인트 골드레벨을 1년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모든 유튜브 영상

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이며, 구글 원은 100기가바이트(GB)의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글플레이 포인트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가 제공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유료 앱·게임, 구글플레이 영화 등 구글 플레이 내 구매 활동 시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김나인 기자

이 프로모션은 올해 첫 5G 단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부터 적용되며,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5G 신규자에게는 신청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골드 등급이 부여된다.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 등급인 경우 결제금액의 1%를 적립할 수 있으며, 골드 등급은 1.3%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한편, LG유플러스와 구글은 2017년 U+tv리모콘 내 구글 어시스턴트 전용 버튼, U+tv 아이들나라 앱 내 ‘유튜브 키즈’ 기본 탑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모바일 전 가입자 대상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터 가상현실(VR) 콘텐츠에 제작 및 공동 투자를 통해 LG유플러스의 VR 전용 플랫폼인 U+VR과 구글의 유튜브에 K-콘텐츠를 공급해오고 있다. /김나인 기자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서 삼성 헤드폰 쓴다

AKG 헤드폰 N700 공식 선정
노이즈캔슬링·토크 쓰루 탑재

AKG 헤드폰 N700이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에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오디오브랜드 AKG가 최근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전용 공식 헤드폰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AKGN700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토크 쓰루’ 기능이 있어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도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 졌다. /김재용 기자



90도 회전 가능한 폴더블 디자인과 조절식 헤드 밴드로 휴대도 간편하다. 그러면서 알루미늄 외관과 가죽 소재로 프리미엄 디자인을 완성했다.

/김재용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경쟁의 금융에서 상생의 금융으로
오늘의 방식을 넘어 내일의 방식으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의 성장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의 기쁨을 넘어
모두의 기쁨을 키우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지엠 창원공장, 누적생산 500만대 돌파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도 창원서”

스파크, 美 시장수출 유일 국산경차
우수한 제품생산 역량 해외 전파
대규모 투자·도장공장 신축 등 진전

한국지엠주식회사가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창원공장 완성차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를 축하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991년부터 경차 생산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경차 전문 생산 공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는 현재 국내 대표 경승용차인 쉐보레 스파크와 국내 유일 경승용차인 다마스 및 라보가 생산되고 있다. 창원공장은 친환경 및 경제성으로 인정 받는 경차의 꾸준한 인기 속에 2009년 300만대, 2014년 400만대 누적 생산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총 500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이 창원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특히 쉐보레 스파크는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JD 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차량내구성평가’에서 미국 내 경차 부문 1위를 기록하며 국산 경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스파크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유일한 국산 경차로 창원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제품 생산 역량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카젠 사장은 “창원공장 완성차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는 회사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창원공장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도장공장 신축 등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과 함께 계속해서 팀의 역량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볼보코리아, 年 판매 1만대 돌파

‘젊고 역동적’... 3040세대 비중 72%

연초부터 월 1000대 이상 판매 기록
네트워크 확장·대기시간 단축 투자

스웨덴 브랜드인 볼보가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XC40, XC60, XC90으로 구성된 XC레인지 인기에 힘입어 ‘1만대 클럽’에 가입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월 10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만570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한국 진출 이후 최초로 연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6.1%)을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것으로 8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의미하는 결과다.

특히 SUV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프리미엄 중형 크로스오버, 신형 크로스컨트리(V60)와 국내에서 가장 경쟁



볼보자동차코리아 분당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 치열한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모델, 신형 S60의 성공적인 안착은 젊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의 자리매김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해 판매에 있어도 볼보자동차는 전년 대비 개인 판매가 27.6% 증가한 가운데 20대(41.4%), 30대(36.4%), 40대(23.%) 순으로 젊은 층의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판매 중 304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은 무려 71.9%에 달한다.

이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서비스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서비스 네트워크 25% 확장 및 고객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대학의 자동차학과와 연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신규 가입하고 게이밍 노트북 받으세요”

SKB 고객센터·홈페이지 통해 이벤트
가입 상품에 따라 에어팟 등 추가 증정

SK브로드밴드는 내달 말까지 새 학기를 맞아 고객센터 106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기가인터넷과 ‘B tv All’, 인공지능(AI) 셋톱박스를 동시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중 106번째, 1060번째 이용자에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HP Omen15)을 증정한다.

광랜 인터넷과 ‘B tv Lite’를 동시에 가입하는 모든 신규 가입자는 ‘겨울왕국2’의 소장용 주문형비디오(VOD) 쿠폰과 한정판 겨울왕국2 캐릭터 카드를 준다. 동일 상품에 신규 가입자 중 선착순 2020명에게는 올라프 인형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입 상품에 따라 신규 이용자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 3세대 ▲갤럭시 S5e 64G ▲필립스 55인치 UHD TV ▲삼성전자 43인치 FHD TV ▲백화점 상품권 등 다섯 가지 중 한 가



모델들이 새학기 맞이 신규가입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지 경품을 추가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공식 홈페이지의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19’ 확산에 스마트폰 공장도 멈춰

中 1분기 시장 20% 급감

中 공장 2월말까지 정상가동 어려워
글로벌 시장 전년 동기비 5~6%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한 때 스마트폰 공장이 멈추기까지 했다. 공장 재가동을 하긴 했지만 2월 말까지는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의 1분기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프라인 매출 의존도가 큰 오포와 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내 매장을 닫으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예정되어 있던 아이폰 SE2는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카운터포인트는 내다봤다. 지난달 28일 2분기 수익 예상치를 630억~670억 달러로 잡은 애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

다.

일부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1분기 글로벌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 부품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육상노선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일 운송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트럭 운전기사들에 대한 검역도 실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의 3분의 2를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제품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했고, ‘갤럭시 S20’ 시리즈는 내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LG전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LG전자의 현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재고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위기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서윤기자 yuni2514@r

“명품 분리막으로 글로벌 1위 기업 도약”

노재석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스키노 뉴스 인터뷰서 전략·포부 밝혀

노재석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사진)이 ‘분리막의 명품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노재석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은 18일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뉴스 전문 채널 스키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선도 기술 기반 ‘명품 분리막’으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사장은 “우리 경쟁력의 핵심은 빠르게 생산을 하면서도 남들이 흉내내



기 어려운 고품질 분리막을 만드는 것이다. 일명 ‘분리막의 명품 전략’”이라며 “SK 아이이테크놀로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을 개척하고 리딩해, 고품질 분리막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사용하고 싶은 명품 분리막 제조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KT-대우건설,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KT는 대우건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물 견본주택을 폐관하고 클라우드 CDN 기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CDN은 트래픽을 분산해 영화, 방송,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최상의 경로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KT는 2006년부터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온라인 강좌 교육기관 등에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평형을 선택 후 3D로 촬영된 주택의 내부 모습을 360도로 돌려가며 실감형

으로 체험하도록 해 고용량의 서비스 제공환경이 필수적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매교역 푸르지오 SK 뷰’를 시작으로 지난 14일부터 오픈했다.

KT와 대우건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규모 동시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KT 클라우드 CDN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T 클라우드 CDN을 사용하면 최대 2GB의 대용량 데이터를 10기가비트(Gbps)의 대역폭으로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많은 접속자가 몰려도 끊김 없는 3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개미들, 국민연금 따라하기... 배당+주가 두토끼 기회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313곳 달해 56곳은 일반투자자 보유목적 변경 경영권 참여보다 배당 확대 위주로 스튜어디스코드 활동 활발해질 듯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한 기업에 투자자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내 기업 투자의 기회 요소로 꼽히던 낮은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이 활발해지며 개별 종목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5% 톨'까지 완화된 데 이어 '5% 톨'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하도록 하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겸 국민연금 기금위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새해 첫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도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이나 단순한 의견 표명, 회

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해임 청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 활동에서 제외됐다. 이런 활동은 이번에 신설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변경해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18일 금융정보업에 에프엔가이드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313곳. 국민연금의 주주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 중 56곳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투자자로 바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여럿 있다.

이들 기업은 암묵적인 배당 확대를 요구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다.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지분 목적을 바꾼 기업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하는 이유다.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목적 변경이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됐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이 일반투자자로 바꾸면 해당 종목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같은 방식을 취하며 주주행동을 암시한 KB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들 역시 국민연금의 선례를 의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시 부담이 줄면서 스튜어디스 코드 활동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투자자 배당 요구가 변경됐다.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보다는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 취지에 맞게 주주권을 행사하되 배당 확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기업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나

왔다. 일반투자자 보유 목적을 바꾼 명확한 이유가 공개되지 않아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이 지분 목적을 변경한 한 상장사 관계자는 "의견을 요구하며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의식돼 상당수 기업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선에서의 경영 경험이 없는 기금위가 명확한 기준 없는 재량적 판단으로 일반 투자자가 불의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류영재 회장은 "일반투자자 목적을 바꾸는 이유는 배당을 비롯해 여러 가지다. 명시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임원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항공소재 다크호스... 보잉 등서 7345억 수주

IPO 간담회

항공소재 부품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작년 30억 투자... 본격 매출 기대

자동화생산로봇 통해 생산원가 ↓



이민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후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항공소재 부품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총액이 7300억원을 넘어섰다. 성장세를 바탕으로 기세를 몰아 테슬라(이억 미실현 기업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주들과 성장의 열매를 나눌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2013년 설립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항공 산업 중에선 유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설립 6년 만에 국내 3개 사업장과 미국에 2개의 자회사를 확보했다. 항공 원소재 공급, 항공기 부품가공·조립, 항공기 창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원소재 공급부터 가공과 조립 등 수직적 통합을 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했다는 평가다.

실적은 매년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81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18년

289억원까지 불어났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34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예상 매출액이 올해는 759억원, 내년엔 12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자회사 켄코아 US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1위 방위산업 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상위 2% 판매처로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대한항공, 카이(KAI) 등 국내 항공 업체에 원소재 공급을 하는 중이다.

이민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한국의 원소재 유통센터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시아 중국 등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

국 고속철도 차량업체에도 알루미늄 소재 납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 기업과도 수주 계약을 따냈다. 중국 3대 항공사로 꼽히는 보잉, 미국 항공사 스피릿과 걸프스트림 등에 협력 업체로 등록됐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7345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항공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항공사와 수년간 쌓아온 네트워크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자신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약 30억원을 투자한 설비 덕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때"라고 밝혔다. 대규모의 수주를 할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정재한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자동화 생산 로봇 공정을 구축해 생산원가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총 157만 2330주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17일~18일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20~21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이 받는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3일이며 NH투자증권이 상장주간사를 맡았다.

/송태화 기자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인기몰이

높은 편의성에 200여개사가 가입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총장'이 중소 상장법인 사이에 입소문이 나며 200개 가까운 기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은 안건과 관련된 의사 표시를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서비스다. 기존에는 상장사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서만 가능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부터 2개 회사가 이미 전자투표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단기간에 200개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로 "기업과 주주 모두 편의성을 크게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주총 관련 입력사항을 자동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

안 기업의 주총 담당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했던 주총 관련 공시 등의 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온라인 주총장' 시스템으로 자동 전달된다.

또한 온라인 주총장에 가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총이 끝날 때까지 각 기업별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세부적인 기능 실행과 운영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페이, 휴대전화 인증 등 다양한 간편인증을 도입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간편인증을 통해 주주들 뿐 아니라 비주주들도 해당기업의 주총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잠재적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삼성증권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온라인 주총장'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송태화 기자

대림산업, 1680억 싱가포르 환승역 공사 수주

주룽 이스트~JRL 연결 2026년 12월 준공 예정

대림산업은 18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주룽 이스트 환승역 확장 및 연결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 금액은 1억9700만 싱가포르 달러로 한화로는 약 1680억원 규모다. 공사 기간은 약 84개월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룽 이스트 환승역에 신규 개통하는 주룽지구노선(JRL)을 연결하는 공사다. 대림산업은 환승역 확장 및 500m 길이의 고가교 건설 공사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수행한다. 대림은 이번 수주를 위해 일본 업체와 1년간 입찰 경쟁을 벌였으며, 발주처로부터 도심지 혼잡구간에서 더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한 공법으로 인정받아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대림산업은 국내외에서 쌓아온 다양한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시공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대림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톰슨 라인 지하철 공사, 투아스 항만 공사 등 대형 SOC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앞선 2013년에는 공사 난이도 높은 마리나 해안 지하고속도로를 준공했다. /정연우 기자

대신증권, MTS 해외주식 모의투자 서비스

美, 中 상해A·심천A 주식 대상

대신증권은 18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미국, 중국 등 해외주식을 무료로 투자 체험해 볼 수 있는 'MTS 해외주식 모의투자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신속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해외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모의투자 대상은 미국과 중국 상해A, 심천A 주식이며, 투자금액은 사이버머니로 지급된다. 투자국가에 따라 미국 주식은 10만달러(USD), 중국 상해A, 심천A 주식은 60만위안화(CNY)까지 주어진다. 투자기간은 최대 3개월 단위로 연중 투자가 가능하다.



모의투자 참가자들은 20분 지연시제로 매매할 수 있다. 거래일 및 거래시간은 실제 해외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주식은 1주, 상해A, 심천A 주식은 100주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신증권 MTS인 사이보스터치나 크레온모바일을 다운받은 후, 초기화면 아래 중간에 위치한 모의투자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손영지 기자 sonumij301@

집값 급등 수·용·성 누르면 '2차 풍선효과' 어디로

(수원·용인·성남)

수원 아파트 1~2개월 만에 1억 ↑
장안구 거래량 388→689건 급증
화성·오산·의왕·안양 만안구 등
남부 일부 지역 '풍선효과' 조짐



12·16 부동산대책이 2개월이 지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원역 인근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정연우 기자

12·16 부동산대책이 2개월이 지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와 달리 규제가 덜한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며 가격 또한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029건, 올 1월 3088건이 신고됐다. 신고기간이 1개월 여유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해 11월 388건에서 12월 476건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 689건으로 급증했다. 권선구는 지난해 11월 697건에서 12월 864건으로, 올해 1월 899건으로 늘었다. 팔달구와 영통구도 1월 계약분 신고 건수가 현재가

지 319건, 1181건으로 전월 거래량을 넘어설 전망이다.

용인시 역시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168건에서 12월에 234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계약분도 현재 2074건이 신고됐다.

교통호재(신분당선 연장, 수인선 등)가 있는 수원 권선구는 능실마을 1단지 호매실 스위트(전용면적 59.9㎡)가 지난해 11월 3억3500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4억3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불과 1~2개월 만에 1억원이 상승했다.

또 광고중앙역, 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오른 영통구는 하동 광고호수마을 참누리레이크 전용면적 84.9㎡가 지난해 10~11월 7억1000만원~7억9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이달 초 8억3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9억원까지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성복역 인근 단지인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는 광고지구 인근 영덕동과 교통호재(인덕원선)이 있는 서천동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거래가 활발하다보니 매물이 소진된 곳도 있다. 수원역 인근 대한 대우아파

트의 경우 전용면적 134.94㎡가 전세 2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을 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84.9㎡가 4억원에 팔렸지만 1월에는 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난해 말에서 초까지 대부분 거래가 이뤄졌다.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지금은 매물이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수·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많고, 신분당선 연장과 인덕원선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존재한다. 인접지역인 화성과 오산, 의왕, 안양 만안구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고지구, 용인 수지와 기흥, 성남 분당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따른다.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 주택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수용성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도에 퍼지는 '풍선효과'로 추가 규제가 생기면 수·용·성 지역의 상승세는 누그러지겠지만 급격한 가격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번주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지 두 달만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이번 대책은 집값이 최근 급등한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에 예상됐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협의 중에 더 불어민주당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또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캠코, 2210억 국·공유지 위탁개발 발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총 190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위해 올해 190건, ▲공사 36건 1571억원 ▲용역 26건 399억원 ▲물품구매 128건 240억원 등 2210억원 규모의 계약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캠코는 공공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청사 신축, 공공시설 개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올해는 공공부문의 건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

력 제고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개발계약 운용 시 기술 공법을 적용한 공사 발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판로확대 기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및 분리발주를 통한 하도급 업체 보호 등 종합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개발계약 전담조직 신설 및 공정·적정 계약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금융지주 '이자장사 끝'... 非이자 강화 온힘

우리 푸르덴셜생명 인수 추진 중
하나 5년내 비은행 이익 30% 목표

주요 금융그룹이 비은행·비이자이익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인수합병(M&A)과 더불어 자산관리·투자금융 등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줄어든 이자이익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IMM프라이빗에쿼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 패처럼 지분투자자와 더불어 인수금융 주선을 노리는 모습이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4일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2025년까지 그룹의 비은행 부문 이익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손해보험업 진출을 검토해 왔다.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IB) 부문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수료 이익도 크게

늘었다.

신한금융그룹의 수수료 이익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2조1410억원, KB금융그룹은 5% 늘어난 2조3550억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전년 대비 1.5%, 3.1% 늘어난 2조2560억원, 1조1030억원을 시현했다.

4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8조88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조3023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이 33% 늘어난 3조1520억원, KB금융은 14% 늘어난 2조2351억원, 하나금융은 28% 늘어난 2조4535억원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1조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금융그룹은 올해도 비은행 부문 다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이자이익에 크게 의존했던 수익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며 대체 수익원 발굴이 절실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승열 하나금융 부사장(CFO)은 지난 4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려간다면 약 600억원 정도의 이자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그룹에 비해 비은행·비이자이익 비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웰스파고, 캐나다 TD뱅크, 일본 미즈호은행 등 글로벌 금융그룹들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30~50%에 이른다. 지난해 국내 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이 일체히 상승하며 30%대에 바짝 다가섰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수료를 조정과 같은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동일한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더 많은 비이자이익을 얻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이 제고될 수 있을 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하나은행 '수출e-구매론' 은행권 첫 출시

하나은행은 수출현장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공급망)'을 활용한 '수출e-구매론'을 은행권 최초로 단독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출e-구매론은 직·간접수출기업을 위한 기업간 결제성 상품이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납품 후 매출채권의 유통화까지 상당기간의 결제기간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번 상품 출시로 조기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품은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신용보증(공급망)'을 활용하게 되면서 출시됐다. 수출신용보증(공급망)이란 수출기업과 간접수출기업간 발행되는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간접수출기업이 채



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지원제도로, 하나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본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직·간접수출기업은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영세율(세율 0%) 적용받아 수출물품의 대외 가격경쟁력 향상은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추가적인 보증지원도 이용할 수 있다. /홍민영 기자

우리금융 '디노랩' 참여 스타트업 모집



우리금융그룹은 스타트업(Start-up)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기존 우리은행에서 운영됐던 디노랩을 그룹 공동사업으로

확대·개편해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종합금융 등 그룹사와 스타트업간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노랩은 위비핀테크랩·디벨로퍼랩·디노랩 베트남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매출 247억원과 업무협약 등 115건 체결, 투자유치 95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디노랩에 최종 선발된 기업은 ▲사무공간 ▲특허·세무·회계 등 컨설팅 ▲투

자유치 및 사업화 ▲베트남 진출 등을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모집대상은 핀테크·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의 기술이나 우리금융그룹과 연계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내달 12일까지 우리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스타트업과 사내벤처 등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THINKWARE

아이나비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 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차 충격 알림**
외부 충격 당시 촬영된 스틸 컷 전송
- 차량 위치 확인**
스마트폰 App으로 차량 위치 확인
- 원격 전원 제어**
스마트폰 App으로 블랙박스 전원 Off
- 차량 정보 표출**
배터리 잔량, 연비 등 차량 정보 확인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불황에 장사없다... 대형항공사도 LCC도 “생존게임中”

변화하는 항공업계

〈上〉 FSC·LCC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구도였던 국내 항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FSC 2개사, LCC 6개사란 경계가 허물어질 조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노재팬·보잉 이슈에 더불어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 업황이 부진하자 다양한 생존책이 나오며 기존 시장구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영업방식의 신생 항공사도 시장에 진입하며 항공업계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항공업계의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적 항공사는 현재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FSC(대형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다. FSC는 'Full Service Carrier'의 약자로 대형항공사나 일반항

항공여객 수요 2010년 6000만명 FSC, LCC로 시장 입지 좁아져 출국 수요 둔화로 LCC도 위기

공사로 불린다. 다양한 기내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는 항공사를 일컫는다.

이와 반대로 LCC는 'Low Cost Carrier'의 약자로 FSC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의미한다.

FSC와 LCC 간 차이점은 크게 ▲운임비 ▲기내식 ▲무료수화물 ▲취항지역 ▲좌석공간 등으로 꼽힌다.

FSC와 LCC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운임비다. FSC는 기내식부터 수화물 취급 및 좌석공간 등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이유다.

반면 저렴한 요금으로 승부를 거는 LCC는 대형항공사와 달리 대부분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고 유상 판매한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위탁수화물의 무게도 저비용항공사가 적으며, 취항지역의 범위를 비롯해 좌석공간 등에서도



국적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연합뉴스

FSC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

이밖에 항공권 취소·환불 등의 경우에도 LCC들은 대형항공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FSC가 먼저 등장했다. 이에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던 두 항공사는 운임보다 서비스에서 경쟁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며 첫 LCC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이 출범해 본격적인 운임 경쟁이 시작됐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 2개,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에어서울·에어

부산 등 LCC 6개사가 운항 중이다. 여기에 최근 플라이강원도 국적 항공사로 합류했다.

항공업계에 LCC가 뛰어들며 항공여객 수요는 대폭 늘었지만 기존 FSC의 점유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04년 현 티웨이항공이 출범하며 국내 첫 LCC 시장이 열린 이후 항공여객 수요는 지난 2010년 60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1억명을 넘어섰다. LCC가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여행의 보편화'를 이끈 것이 항공 이용객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다만 FSC는 LCC로 인해 시장 내 입

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형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2012년 59.1%에서 ▲2019년 37.4%로, 국내선 여객 점유율은 ▲2012년 56.2%에서 ▲2019년 42.2%로 감소했다. 반면 LCC는 국제선 및 국내선 모두 2012년 대비 2019년 기준 각각 22%, 14% 늘며 지속 성장 중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내국인의 출국 수요 성장세마저 둔화돼 FSC는 물론 LCC도 위기를 맞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지난해 2월을 제외하고, 매월 한국인의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의 아예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 출국자 수요는 지난해 ▲10월 215만명(-8.3%) ▲11월 209만명(-9.0%) ▲12월 234만명(-6.1%)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LCC 중심의 항공시장이 한창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영향을 끼쳐 LCC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위기극복 '비상경영' 선포

한일관계 악화, 코로나19 등 악재 비용절감·수익성 개선 돌입키로



로 특단의 자구책 실천에 앞장 서기로 결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전 임원들은 급여를 30%(사장 40%) 반납하고, 모든 조직장들 역시 급여 20% 반납에 나선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좌석 기준 중국 노선 약 79% 축소, 동남아시아 노선 약 25% 축소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운항, 캐빈, 정비 등 유류인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어닝 쇼크와 '코로나 19' 등으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사진)은 19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답화문을 통해 2019년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회사가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19일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며 '생즉사사즉생(生即死死即生)'의 각오

이에 따라 전직종(일반직, 운항승무직, 캐빈승무직, 정비직 등) 무급휴직 10일을 실시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외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2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던 창립 32주년 기념식도 취소했으며, 창립기념 직원 포상도 중단했다. 향후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 영업의 활동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조' 등 3대 노조와 함께 '위기 극복과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노사가 합심해 위기 극복을 다짐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종이고지서 이제 모바일로 본다

과기정통부 대민업무 기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 사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과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 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 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 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또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법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전자고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의 체감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사진기자 echo@

현대오일뱅크 '카젠' 우수한 품질로 경쟁력 확보

현대오일뱅크가 리뉴얼을 통한 고급 휘발유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18일 고급휘발유 브랜드 'KAZEN(카젠)'을 리뉴얼 출시하며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경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KAZEN은 황제를 뜻하는 'Kaiser'와 최고를 뜻하는 'Zenith'를 합친 말로 고급휘발유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고급휘발유는 자동차 연료유 중 유일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고급휘발유 소비량은 2016년 88만 배럴에서 지난해 135만 배럴로 연 평균 15.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보통휘발유는 7805만 배럴에서 8148만 배럴로 연 평

균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저유가가 지속된 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입차 선호현상이 강해 고급휘발유 수요는 당분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출력수입차는 고급휘발유 주유가 필수다. 고급휘발유를 써야 노킹(Knocking)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휘발유가 정상 연소되지 않으면 엔진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과 같은 소리가 발생한다. 이런 노킹현상이 계속되면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부품까지 손상된다. 옥탄가가 노킹현상을 방지해주는 정도인데 카젠의 옥탄가는 100이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옥탄가가 94만 넘으면 고급 휘발유로 분류된다.



K리그 경기장에 설치될 현대오일뱅크 카젠 입체광고물의 예상도

현대오일뱅크의 카젠은 지난해 국내 최대 레이싱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공식 연료로 선정되며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3월 개막되는 프로축구K리그에 입체광고물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취급점을 현재의 두 배인 300개로 확대해 10%대인 시장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연차보고서 美 LACP 어워드 금상

현대엘리베이터의 '2019 연차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18/19 LACP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18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출품한 2019 연차보고서는 첫인상, 표지 디자인, 내용 구성, 재무보고 등 총 8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총점 98점을 받았다.

비전 어워드는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관 LACP가 주관하는 연차보고서 경연 대회다. 올해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의 기업,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 등 1000여 개 기관의 연차보고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세계화 비전, 전략 등



현대엘리베이터 2018-2019 연차 보고서가 미국 LACP가 주관하는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Gold Awards)을 수상했다.

회사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담백하게 표현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6년부터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통합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상(플래티넘)을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외식 줄고, 간편식 늘고... 프랜차이즈도 HMR '눈독'

(가정간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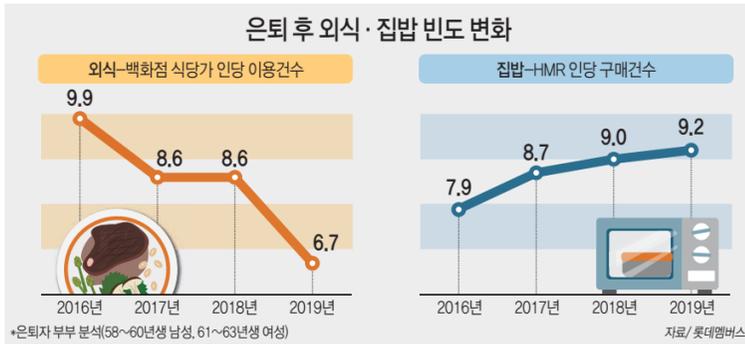
1인·맞벌이 가구 증가에 HMR 성장 시장 규모 3조... 10년새 10배 ↑ 은퇴자 부부 HMR 구매 16% 늘어

외식산업경기지수 매년 줄어들어 교촌치킨·설빙 등 HMR시장 가세

최근 외식이 줄고 가정간편식(HMR)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에 발맞춰 연이어 HMR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08년 2588억 원에서 2018년 3조300억 원으로 10년 새 10배가량 성장했다. 업계는 HMR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올해 4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MR 시장은 1인·맞벌이 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등장했다. 저렴하고 간편한 조리방식, 다양한 종류의 제품(피자·짜개·안주 등)이 출시됨으로써 시장이 성장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6%(562만 가구)를 차지했다. 2035년에는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HMR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벌이 가정과 중장년층 가구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

장년층 은퇴자 부부 집단의 집밥 빈도도 늘어났다. 롯데멤버스의 엘포인트(L.POINT)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가정간편식 인당 구매금액은 2016년 대비 약 16%, 이용 건수가 1.3회 늘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인당 구매금액이 17%, 구매 건수가 평균 1.5회 많아졌다. 백화점 식당가 이용은 2016년(9.9회)에 비해 지난해(6.7회) 33% 감소했다.

반면 외식업은 침체한 분위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외식산업경기지수는 2014년 71.91에서 2018년 67.51, 2019년 4분기 65.68로 떨어졌다.

이렇게 외식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외식업계는 HMR 시장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3월 오픈마켓에 처음 선보인 '닭갈비 볶음밥'이 호응을 얻자 올해 하반기에는 자체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다양한 HMR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BBQ도 2017년 자체 쇼핑몰 '비비큐몰'을 오픈하고 삼계탕과 닭가슴살 등 닭을 활용한 HMR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0410'의 메뉴를 앞세워 지난해 HMR 시장에 진출했다. 첫 HMR 상품으로 출시된 홍콩반점0410 해물육(육)교자는 해물과 돼지고기를 채운 왕교자로 홍콩반점0410 매장에서 출시된 메뉴다. 오징어와 새우를 갈지 않고 다져 넣어 식감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더본코리아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제품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존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인기 메뉴는 물론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자체 개발 상품도 HMR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설빙은 지난 14일부터 약 2주간 전국 설빙 10개 매장에서 간편식 '설빙 밀(S

ULBING MEAL)' 4종과 음료 등을 선 공개한다. 설빙 밀은 '베이컨크림스파게티', '로제스파게티', '눈꽃볶음밥', '짜장게티'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설빙은 이미 빙수 외 메뉴인 '매콤쌀떡볶이', '감파스타', '피자' 등을 간식 메뉴로 선보인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HMR을 출시하는 추세"라며 "HMR 시장은 이미 식품 대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는 각 브랜드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야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PB상품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지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신성장 동력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15년만에 뜯어고치는 게임법... 역차별 우려

문체부 '게임산업 재도약 토론회' 법률제정 '게임사업법' 변경 제안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등 총력전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15년 만에 '게임법'을 전면 개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간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률 방향을 진흥과 육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해 향후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제정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됐다. 개정안에서는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성 게임,



김용삼 문체부 차관이 18일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중독, 도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을 삭제한다. 또 PC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해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신설하고 '게임문화의 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설립 근거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확률형아이템 등에 표시의무를 보완하고, 외국 게임제공사업자로부터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인 분쟁조정제도도 신설한다.

협회 측은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하이트진로, 美 판로 초석 다진다

HITEJINRO 기업설명회 등 투자활동 촉진

하이트진로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기업설명회(NDR)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간 뉴욕,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해외 IR을 진행한다. 이번 해외IR 일정에는 김인규 사장이 참여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장과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을 통해 투자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경영실적을 설명하고, 지난해 출시한 '테라', '진로'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발포주 '필라이트'를 포함한 국내시장 현황과 해외 시장 성장추세 등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기업설명회(NDR)를 위해 미국을 찾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트진로는 두 신제품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7년 만에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하이트진로의 2019년 매출액은 2조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성장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를 쌓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하이트진로의 기업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기아차·휴앤쇼핑 등 기업 신입 채용

잡코리아, 신입공채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중합금속 등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SPC삼립의 경우 재경, 디자인, 영업 등 각 부문에서 정규직전환형 인턴사원을 채용 중이다.

18일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에 따르면, (주)휴앤쇼핑, 현대중합금속(주), 전남도시가스, (주)SPC삼립, JW중외

제약, 기아자동차(주), 교원그룹, GS엔비즈(주) 등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기아자동차는 각 부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부문은 기업 전략(미래 신규 사업 개발/추진), 홍보(인론홍보), 글로벌사업관리(해외사업 관리, 상품기획/운영), 방산/군수(군용 차량 전기/제어장치 개발 및 설계 등) 각 부문이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은 모집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1차 면접전형(온라인 인적성 검사 포함), 2차 면접전형(채용 면접 포함),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기아자동차 채용포털에서 가능하며 기업전략 부문은 2월 21일, 홍보, 글로벌사업관리 부문은 2월 23일, 방산/군수 부문은 2월 16일에 입사지원 마감된다.

기타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신입 채용 일정은 잡코리아 신입공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현대건설기계·현대자동차그룹, 맞손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대형 건설기계 개발에 나선다.

현대건설기계가 경기도 용인시 마북연구동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수소지게차 및 중대형 수소굴삭기를 개발하는 내용의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공동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파워팩을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고, 현대건설기계가 이를 적용한 굴삭기 및 지게차의 설계와 제작, 성능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2023년부터 관련 제품들을 양산해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의 기존의 디젤엔진 기반 장비와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되지 않아 최근 친환경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장비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독립성 훼손 우려” 목소리

데이터 3법 개정·입법 과제 세미나

데이터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된 형태로 출범했지만 정부의 대통령령 안에서 시행 입법이 만들어지도록 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전문 교수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미국, 일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명정보를 잘못 처리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벗어나면 5년 이상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명정보의 잘못된 처리로 검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데이터 3법 통과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 데이터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재식별하지 않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데, FTC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 판단까지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형사법 처리에 있어 가명처리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줘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에 대해 하나의 기준과 세분화된 규정을 마련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처리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명처리는 '1사람을 의미하는 정보를 2사람 이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1사람이 되지만 19대를 빼면 12명이 돼 더 이상 1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식으로 제한적인 식별자 제거로는 불충분하며, 우리나라에는 맥락으로 만들어 경우의 수를 2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며 "산업별로 다시 가명처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에서 가명처리인지 아닌지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치를 통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더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개인정보와 건강, 의료,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 사이의 차이가 없어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이 가명처리를 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 여러 전문기관이 어떻게 협력을 할지 시행령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만들어 하나의 처리기관에 올리고, 이 기관이 다른 곳과 연계해 해결해주던지 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산업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에는 개인정보로 보던 기기 식별 정보, IP 주소를 현재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가명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

드라마 열풍에 북한학과 '재조명'

(사랑의 불시착)

남북 관계 따라 관련 학과 희비 '사랑의 불시착' 흥행으로 주목 동국대 북한학과 등 명맥 유지

남북 관계에 따라 희비를 보였던 북한 관련 학과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최근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의 월북 이야기를 담았다.

1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폐지되거나 유사학과인 정치외교학과 등으로 통폐합되는 등 국내 대학의 북한 관련 학과는 남북 정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명지대, 가톨릭관동대, 선문대, 조선대 등에 있던 북한 관련 학과가 유사학과로 통폐합된 게 그 사례다.

지난해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북한 관련 학과의 지원도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대입 경쟁률로 드러난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북한 관련 학과는 동국대 북한학과다.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북한학과 명칭으로 설립한 이후 수많은 북한 연구

〈북한 관련 학과 정시모집 경쟁률〉

/자료=진학사·각 대학

대학/학과	구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동국대 북한학전공	모집정원	5	5	5	7	7
	지원자 경쟁률	30	47	35	46	59
고려대(세종)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모집정원	26	25	25	25	14
	지원자 경쟁률	177	192	165	170	92
	경쟁률	6.81:1	7.68:1	6.6:1	6.8:1	6.57:1



tVN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 /뉴스1

자를 양성해와 북한학 분야 선구자이자 이 분야 독보적인 학과로 꼽힌다.

동국대 북한학과 역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2017학년도 정시 경쟁률 6.57대 1, 2018년 7대 1, 2019년 9.4대 1로 인기가 높아지다, 2020년엔 경쟁률이 6대 1로 다시 떨어졌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다 안개 속 같은 북미관계 상황이 더해지면서 인기가 추축했다.

하지만 동국대 북한학과는 학과가 속한 사회과학대 8개 학과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인문계

수험생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공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 관련 학과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통일외교안보전공역시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 2019학년도 7.68대 1의 경쟁률이 2020학년도 6.81대 1로 떨어졌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에서는 공공정책대학 내 6개 전공 중 통일외교안보전공 경쟁률이 가장 높다.

2021학년도 동국대와 고려대 대입 전형계획에 따르면, 동국대 북한학과는 총 15명을 선발하고, 고려대는 수시에서만 통일외교안보전공으로 25명, 정시에서는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로 2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을 통틀어 올해 북한 관련 학과 최고 경쟁률은 7명 모집에 124명이 몰려 17.71대 1을 기록한 동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인 'Do Dream 전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장에 성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8일 오전 교내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27회 이사회를 열고 제41대 이사장에 성우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 28일까지다.

성우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1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스님은 1993년 '법화경 방편품에 관한 연구(승사상을 중심으로)'로 철학박사를 취득했다. 1985년 군중법사 공군대위로 전역하고, 익산 관음사 주지, 군산 은적사 주지, 군산교도소 종교위원, 제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계종 나눔의 집 이사, 동국대학교 석림 동문회장 등을 맡고 있다.

성우스님은 "본교 출신으로 항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미려한 소납이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한신대 학위수여식 소규모로 진행

한신대학교는 교내 장공관 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소규모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학부와 대학원 학사 749명, 석사 51명, 박사 5명 등 총 80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한신대는 앞서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위수여식 행사와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한신대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참석을 원하는 졸업생 중 수상자만 참석하도록 해 행사를 진행했고, 졸업생 가족도 행사장 참석을 제한했다. 외빈과 축사는 영상으로 대신했다. /한용수 기자

공립유치원·학교 19개교 3월 신설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1교 등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3월에 공립 유치원과 학교를 19개원 신설해 개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설되는 학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유치원 15개원, 강서구 내공진초 폐교부지에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1교, 대규모 주택사업 지구 내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2교다.

공립 유치원은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성을 위해 4가지 모델로 설립한다.

매입형유치원 8개원은 지난해 공모

와 선정, 교육부와 시의회 심의, 원아 모집 등의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3월 사립에서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 설립된다. 관악구 소재 매입형유치원인 청림유치원은 3월까지 서울시의회 승인 이후 4월 공립 전환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매입형유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구암유치원 등 5개원이 설립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 2017년 장애 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잘 알려진 공진초 폐교 부지 내에 서진학교가 설립 개교한다. 서진학교는 2014년 설립계획을 마련 한 후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6년 만에 개교한다. /한용수 기자

“2차원 소재 양자역학적 상호 작용 규명”

양희준 성균관대 교수 연구팀

성균관대학교는 에너지과학과 양희준 교수(사진) 연구팀이 2차원 적층 소재에 존재하는 슈타르크 효과(Stark effect)를 활용해 양자역학적 밴드갭 제어 및 초절전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 소재에 활용되던 광학적, 전기적 방법은 원자층 두께의 2차원 소재에 존재하는 여러 양자역학적 상호 작용 및 밴드갭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이슈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원자 격자 각도 제어



를 통한 시료 적층 공정 및 양자역학적 공명 터널링 현상을 활용해 기존 분광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2차원 반도체 소재의 전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슈타르크 효과가 크게 발현될 수 있는 2차원 적층 구조에서 전기적 방법으로, 직접 슈타르크 효과를 관측 및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한용수 기자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삼육대 선정

삼육대는 KDB나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2020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 발굴(Customer Discovery) 중심 창업교육'을 국내 대학에 확산하는 사업이다. 고객 발굴은 고객 인터뷰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시장성이 없는 모델은 포기하고, 다른 시장성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창업전략이다. 삼육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객 발굴 중심 창업교육을 대학 내 전공 교과목으로 1년에 2회 개설하게 됐다. /한용수 기자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NH농협금융, 코로나19 극복 우리 농산물 지원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7일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코로나19에 따른 무료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우리 농산물과 손 소독제 등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광수 회장(가운데)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우리 농산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농협금융



NH농협은행, 용산노인복지관에 방역물품 지원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자금운용부문이 서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마스크 및 손세정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꽃 나눔 행사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김형준 부행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자금운용부문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은행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오만서 청해부대 격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17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항에 정박한 청해부대 31진 완강함(4400t급)을 방문해 파병임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 작전환경과 근무여건을 확인했다. 해군은 심 총장이 오만 공식 방문 기간 중, 이란 국적 표류 선박을 구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부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군



GS리테일, 임직원 급여기부로 직원 치료비 19억 지원
GS리테일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2020년 1월 기준) 본인의 중증 질병이나 가족 병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670명에게 '작은사랑나눔회'를 통해 마련한 금액 총 19억 3000만원을 지원했다. GS리테일의 '작은사랑나눔회'는 2004년부터 운영중인 내부 지원제도로, 약 4천여명의 임직원 중 자발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월 급여 중 1000원 미만 금액(1원~999원)을 기부한다. /GS리테일



세종대 세종나눔봉사단, 우즈벡 이코마에서 봉사활동
세종대학교세종나눔봉사단은 지난 1월 6일~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이코마에서 진행된 세종나눔 해외봉사단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는 8기 세종나눔 해외봉사단원 19명과 프렌드아시아의 현지 통역단원 6명 등이 참가했다. 봉사단은 이코마의 한 센터를 중심으로 교육봉사과 노력봉사를 했다. 문화교류, 지구촌 시민학교, 문화탐방 등의 활동도 펼쳤다. /세종대

예술인 곁으로 성금 다가선 '예술인 복지'



홍경안의
시시일각

우리나라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의 각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인 창작·생활안정지원책을 마련해왔다.

그중에서도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인으로서의 금지와 문화예술의 향기가 창작자 개인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광복할만한 사업들을 펼쳐 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이내인 현업 예술인 1만2000명(작년의 경우 5500명)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예산은 약 360억원으로, 약 16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낮은 소득 개선에 방점을 둬으로써 창작동기 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창작안정망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반 금융제도에서 소외된 예술가들은 단비와 같은 제도로 인식한다.

2~3%의 저리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이 사업은 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예술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다.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 중인 상환액 1억원의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과 향후 시행 계획에 있는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역시 주목받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2019년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90억원으로 확대됐다.

크게 상향된 지원 규모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유독 눈에 띄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술인의 입장에서 창작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고민과 실천이다. 일례로 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처럼 예술가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원 신청 입력항목을 최소화했으며,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에서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는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예술인 편에서의 시선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추인 '예술활동 증명' 또한 예술인의 눈높이에서 재검토된 사례로 꼽힌다. 40여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에겐 또 다른 수고로움이나 내부 행정과정을 도입해 정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활동 증명 방식에 변

화를 줬다.

나아가 차수로 모아 진행하던 전문가 심의를 상시로 변경해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예술인들의 초조함도 없었다. 기존엔 정량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심의 진행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재단은 보다 효율적인 복지구현 차원에서 지난 1월 초 일찌감치 '집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창작자와 매개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술인과견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기다릴 것을 생각해 공모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섬세한 접근을 보여줬다. 이 모두가 예술인들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재단의 의지이자, 예술인의 삶 속으로 다가서기 위한 고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예술인 복지가 '가난'이 내재한 삶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주로 경제적 지원에 치우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술인 복지의 시작인 '예술활동 증명'이 활동경력이라는 정량적 기준만 적용돼 취미에 머무는 생활예술인과 아마추어들의 유입이 적지 않은 현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복지 사업이 창작의 가치와 예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유도했는지에 관한 가시적인 지표 제시가 불충분할뿐더러,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홍보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싹든 좋은 쉼터와 활 부분이다. /미술평론가

롯데멤버스, 착한 신학기 캠페인 1억 기부

롯데멤버스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를 찾아 창립 5주년 기념 '착한 신학기 캠페인'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착한 캠페인은 롯데멤버스가 매년 1월 한 달간 엘포인트(L.POINT) 회원 및 제휴사와 함께 진행하는 고객참여형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이다. 지난 5년간 ▲착한 돌잔치 ▲착한 도시락 ▲착한 장보기 ▲착한 시네마 등 캠페인을 통해 누적 5억여 원을 기부했다.

올해는 하이마트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청소년, 대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는 착한 신학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PC, 모바일 등 IT 제품 구입 시 엘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롯데멤버스가 건당 3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전형식 롯데멤버스 대표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도 정보 격차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디지털 세대로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멤버스 착한 신학기 캠페인 기부금 전달식 /롯데멤버스

인사

- ◆ 기획재정부 ○ 실장급 인사 △ 국제경제관리관 허장 ○ 국장급 인사 △ 부총리정책보좌관 강완구 △ 개발금융국장 박일영
- ◆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 △ 고용지원정책관 황보국 ○ 국장급 승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준영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권창준 ○ 과장급 전보 △ 인적자원개발과장 최영범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박희경
- ◆ 조달청 ○ 과장급(직위승진) △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장 문수호 ○ 서기관 승진 △ 대변인 실 양영호 △ 구매총괄과 이봉규 ○ 기술서기관 승진 △ 우수제품구매과 김용길 ○ 과장급 전보

- △ 해외물자과장 양재규
- ◆ 한국투자공사 △ 경영기획팀장 민병성
- ◆ 하나금융투자 ○ 주식본부장 선임 △ 전무 차기현
- ◆ 국민일보 △ 편집인 겸 논설위원실장 김영호 △ 논설위원실 대기자 김진홍 △ 수석논설위원 박정태 △ 편집국장 고승욱 △ 논설위원 오종석
- ◆ 더밸류뉴스 △ 편집국장 조창용
- ◆ 나눔경제뉴스 △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차석록 △ 경영지원본부장(전무) 이상일 △ 나눔투자연구소장 전재영
- ◆ 소년한국일보 △ 부사장 염희선

부음

- ▲ 최대수씨 별세, 최병철(현대차증권 사장)씨

- 부친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0일, (02-3010-2263)
- ▲ 정연례씨 별세, 백영철(우리안전엔지니어링 전문위원)·삼철(능해의원 원장)·기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숙씨 모친상, 조정숙·기순신(명지대 교수)·안선희(한겨레신문 2에디터)씨 시모상, 오평종씨 장모상 = 17일 오후 9시,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2-2650-2748)
- ▲ 윤복향씨 별세, 원경호(이데일리TV 국장)씨 모친상 = 17일 오후 11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32-890-3193)
- ▲ 남소희(울산제일일보 기자)씨 본인상 = 18일 오전, 울산중심삼정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신세계

백화점 메시지의 변화 쇼핑정보 이제 그만 명상·클래식 등 차별 콘텐츠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받은 백화점 쇼핑 메시지에서 이전과는 달리 '함께 나누는 명상 비법', '불안을 잠재우는 추천 클래식' 등과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명상 비법과 추천 음악, 도서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최근 휴일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명상과 추천 도서 등을 보며 알차게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다가오는 주말에는 도서와 함께 추천한 차(茶)를 사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종합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로 차별화 마케팅에 적극 나선다.

이벤트형 대형 행사, 특가 상품 정보만을 가득 채워 전송했던 '스마트 메시지(문자를 통해 쇼핑 뉴스를 제공했던 방법)'를 고객들의 관심 사항을 반영해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형태로 바꾸어 제공하는 것.

새롭게 개선된 신세계백화점 스마트 메시지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고객들이 2월 한 달간 관심을 가질 내용을 반영해 각 점포별 추천 상품과 함께 '건강을 위한 추천 도서', '불안을 잠재우는 클래식 음악' 등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집 안에서의 활동이 많아진 고객들의 성향을 고려해 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드풀니스 명상법을 소개하는 '하루 10분 명상 비법'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짧게는 하루 5분에서 길게는 10분

관심내용 반영 '스마트메시지' 집안 활동 많아진 트렌드 고려 '하루 10분 명상비법' 등 소개 "오프라인 쇼핑 만족도 높일 것"

간 할 수 있는 마인드풀니스 명상법을 각 단계별로 세세히 방법을 소개하며 최근 집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 '케렌시아'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것.

또 일상 생활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고객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최고 식품영양학 권위자인 유태종 교수가 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사는 생활실천법'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7번 C장조' 클래식과 함께 이달의 릴렉싱 추천 콘텐츠로 소개한다.

신세계는 한층 진화된 이번 스마트 메시지를 통해 한 달 최대 400만 건까지 발송되는 고객 소통 방법에 차별화를 꾀했다.

신세계는 향후 'SHINSEGAE LO

VESSPRINGS' 등과 같은 대형 테마 행사 진행 시 발송되는 스마트 메시지도 각 시점에 맞춰 백화점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엄선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새학기 입학과 결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프트·혼수 추천은 물론 관련한 매거진 등을 소개하며 가족단위 고객들이 많이 찾는 5월과 7, 8월 휴가철에는 포토존, 체험형 아카데미 강좌 등과 같은 색다른 콘텐츠를 담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2017년 3월, 업계 최초로 AI를 접목시킨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된 고객 마케팅을 선도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9월, 업계의 대표 소통 수단이었던 종이 DM(Direct Mail)을 없애고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메시지를 강화해 친환경·고객 맞춤형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



한 상무는 "고객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 된 서비스로 오프라인 쇼핑의 만족도를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합화, 대형화 되고 있는 유통업계에 개인화·맞춤형 마케팅을 접목해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소비자가 만든 '일상 속 편안한 디자인'

롯데마트, 룸바이홈 신제품 67종

'우리집' 테마 고객참여 디자인 공모

롯데마트의 홈라이빙 전문 브랜드 '룸바이홈'이 고객 참여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우리집'을 주 테마로 2020 SS 신제품 67종을 선보인다.

고객이 참여하는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해 올해로 5번째를 맞이했으며, 매 시즌 20여종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우리집 시리즈'는 다인 가구에서 1~2인 소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혼행(혼자여행), 혼영(혼자영화)을 즐기거나 혼자 맛집을 탐방하고 반려동물과의 삶을 즐기는 모습 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했다.

특히, 집을 모티브로 평범한 일상에



고객이 참여해 개발한 룸바이홈 /롯데쇼핑

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며, 누구나 쉽게 식사를 차리고 연출할 수 있도록 식기, 도마를 비롯해 앞치마, 쿠션 등의 홈패브릭 상품

등 총 67종을 상품을 출시했다.

대표적인 홈 패브릭 상품으로는 방석과 앞치마가 각 1만5900원과 1만6900원, 쿠션 1만5000원, 공기는 5300원, 대접은 5900원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혼밥을 할 수 있는 손잡이볼과 나눔 접시도 각 1만5900원과 1만500원에 선보인다.

'롯데마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상품은, 고객 스스로가 상품 개발 과정 초기부터 참여해 형태, 패턴, 규격 등을 까다롭게 제안했다.

롯데마트 한지현 홈부문장은 "룸바이홈의 디자인 공모전은 상품개발이 유통업체나 제조업체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스스로가 원하는 상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장 건강 위한 'BYO 유산균'

배우 지진희 모델로 새 TV광고

CJ제일제당은 유산균 전문브랜드 'BYO(바이오)'의 새로운 TV광고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면역력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면역력과 직결되는 장 건강 증진에 탁월한 'BYO 유산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고는 BYO 유산균의 강한 생명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腸)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생존유산균' 키워드를 앞세웠다.

광고 모델로는 지난해 BYO 유산균의 얼굴이었던 배우 지진희가 다시 선정됐다. 광고 론칭 이후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BYO 유산균의 특징을 더욱 신뢰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이미지라는 평가에서다.



BYO 유산균 광고 /CJ제일제당

BYO 유산균은 위산과 유사한 산도(pH)에서 발견한 식물성 유산균으로, 위산을 견디고 장 끝까지 살아남는 강한 생존력을 가졌다. 4중 코팅 기술로 유산균에 보호막을 만들어 한 층 생명력을 향상시켰으며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증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김민지 기자 kmj@

풀무원 '겉바속촉' 냉동피자 100만관 판매

'노엣지 크러스트' 출시 두 달 성과

풀무원식품은 '노엣지 크러스트 피자'가 출시 두 달 만에 100만관 판매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올해 냉동피자 매출 목표를 150억 원으로 잡았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호조와 긍정적인 고객 피드백에 따라 목표 매출액을 3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시장점유율 2위도 쉽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풀무원식품은 냉동피자가 인기몰이에 성공한 원인을 그동안 시장에 없던 차별

적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제 구매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에어프라이어 조리해 최적화해 출시한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했을 때 질겨거나 딱딱하지 않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속촉' 식감을 혁신적으로 구현했다. 피자 도우도 쉽게 4등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기존 단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노엣지 크러스트 피자'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풀무원 냉동피자 5종 /풀무원식품

국내 냉동피자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올해는 풀무원이 시장 전체 성장을 주도해 냉동피자 시장을 10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키워 나가고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11번가서 KCC 창호 시공하세요"

온라인몰 입점기념 최대 30% 할인

KCC의 창호 시공상품을 11번가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커머스포털' 11번가에 KCC글라스가 단독 입점, 3월 15일까지 KCC 창호 시공상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KCC글라스가 온라인몰에 입점한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전체 창을 리모델링하는 '프리미엄 패키지'는 25평형 기준으로 30% 할인한 649만원, 'KCC 창호 베이직 거실의 창 이중창'(가로 3.1m, 세로 2.3m) 상품

은 25% 할인한 232만원이다. 방문 상담과 실측, 시공, 수거, 사후관리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들에게는 신세계 상품권과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무엇보다 KCC글라스 본사에서 직접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져 믿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품 주문 시 KCC글라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고객 상담과 실측을 진행하며 이후 KCC글라스와 시공 계약을 체결한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렘시마SC’ 獨서 첫 처방

10조 유럽시장 공략 신호탄

독일 TNF-α 치료제시장 약2.3조
의료진 대상 맞춤형 마케팅 주력
내달 獨 최대규모 학회서 심포지엄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인플릭시맙과 하주사제형 프라임시밀러 ‘렘시마SC’가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처방이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렘시마SC’가 순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마케팅 역량으로 유럽 처방에 성공한 만큼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 TNF-α 치료제 시장 선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렘시마SC’ 처방 확대 목적으로 론칭에 앞선 지난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현지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렘시마SC’의 2월 독일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독일 베를린 의학대학 류마티스병원 리케 알텐(Rieke



렘시마SC /셀트리온헬스케어

Alten) 교수와 벨기에 루벤 대학의 웨스트토브(Westhovens) 교수가 참석해 ‘렘시마SC’ 임상 결과와 처방 잠재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부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셀트리온그룹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판매 현황 및 ‘렘시마SC’ 마케팅 전략, 유럽 시장 직판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독일은 TNF-α 치료제 시장이 약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유럽 최대 시장이다.

독일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러한 독일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 대상의 맞춤형 ‘렘시마SC’ 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 3월 개최 예정인 독일 최대 규모의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의료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렘시마SC’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기 부회장은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 렘시마SC를 순차적으로 출시해 10조 원 규모의 유럽 TNF-α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렘시마SC’는 주요 시장에서 직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마케팅 역량을 갖춘 우수한 현지 인력들을 올해 말까지 글로벌 전역에서 300여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메디톡신’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적응증 획득

메디톡스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신 제품 사진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중 최초로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메디톡신은 ▲경부근 긴장이상 치료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침착기형 ▲눈꺼풀 경련 ▲미간 주름 ▲눈가주름 등 총 6개의 적응증을 확보해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게 됐다.

흔히 사경증이라 불리는 ‘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걷기, 운전하기 등 일상 생활에 제약이 클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드러나 심리적 위축이 상당하다.

메디톡신은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메디톡신을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씨젠,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공급

자동화로 하루 1000명 동시검사

3개 목표유전자 검출토록 설계
대용량 검사 효율성 크게 높여
검사시간 단축, 결과 자동 판독

씨젠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전세계 공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Allplex 2019-nCoV Assay)은 지난 7일 유럽 인증(CE-IVD)을 받은 데 이어 12일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 제품은 코로나19 유전자에 대한 다수의 국제 프로토콜(검출대상 목표유전자 염기서열)을 기반으로 3개의 목표유전자(E gene-RdRP gene and N gene) 모두를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다. 국가마다 코로나19를 검출하는 유전자



코로나19 진단시약 /씨젠

프로토콜이 조금씩 차이를 보여 이 중 일부만 반영할 경우, RNA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가 생긴다는 특성 때문에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 현재 목표유전자의 양성유무와 목표유전자 타입을 두 개의 튜브로 각각 검사하는 것에서 한 개의 튜브로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용량 검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임과 동시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제품은 씨젠의 자동화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검사기관에 따라 하루 1000명 이상 동시검사가 가능하다. 또 검사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어 검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출시된 씨젠의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나 폐렴의 동시검사가 가능해 유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원인 규명에 따른 처방이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일일 생산가능량은 5만건 검사 규모다. 씨젠은 필요에 따라 2배까지 증산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내 및 해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포니이펙트 ‘프라임 프로텍트 선 커버’, 베네피트 ‘보-잉 케이크리스 컨실러’, 아리따움 ‘매트포몰라 아이브로우 펜슬’, 바이레도 ‘톨립마니아’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엔 가벼운 메이크업

톤업·자외선 차단 크림으로 가볍게

지금 대한민국은 마스크의 나라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을 나서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일과를 보낸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메이크업을 사수하는 방법이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마스크에 눌러 접촉 부위의 파운데이션이 지워지고, 마스크 속과 마스크 틈새로 새어 나오는 습기, 열기로 인해 평소보다 빨리 화장이 무너지고 홍조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픽서를 사용해 메이크업을 고정하거나 내부 공간이 넓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베이스는 자연스러운 톤 보정

파운데이션, 쿠션을 쓰지 않더라도 베이스 메이크업은 필요하다.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과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선블록이라도 바르는 것이 좋다.

포니이펙트의 ‘프라임 프로텍트 선

커버’는 원래의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주고 화사하게 톤을 밝혀 주면서 적당한 커버력을 가진 선블록이다. 모이스처라이저와 같은 촉촉한 제형으로 발림성이 좋다.

◆뭉은 컨실러로 눈에 띄는 트러블만 살짝 가리기

베네피트의 ‘보-잉 케이크리스 컨실러’는 리미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고르게 밀착되며, 소량만으로도 피부 결점을 한번에 커버해준다.

◆뜨렸한 인상 위해 눈썹 선명하게

피부톤이 내추럴하면 인상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눈썹은 선명하게 그린다. 눈썹 앞머리보다 꼬리 쪽이 짙은 편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아리따움의 ‘매트포몰라 아이브로우 펜슬’은 민낯에도 부드럽게 발색 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연의 눈썹 결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눈썹 사이 빈틈을 채워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편리함·영양 살린 ‘집으로ON 순살생선’

대상 청정원 고등어, 삼치구이 선택

대상 청정원 온라인 전용 브랜드 집으로ON은 ‘집으로ON 어린이 순살생선’ 2종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번거로운 조리과정 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산물 HMR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HMR 시장 규모는 2016년 220억 원에서 2018년 339억 원으로 2년간 약 54% 성장했다.

청정원 집으로ON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구이’와 ‘삼치구이’로 구성된 어린이 순살생선 2종을 선보



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제품은 100% 수작업으로 가시를 제거해 생선을 발라먹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집으로ON 어린이 순살생선’ 2종은 레몬즙을 사용해 잡내를 제거하고 5단계 열처리 오븐기를 사용해 단시간에 빠르게 구워내 생선 고유의 맛과 영양과 촉촉함을 살렸다.

/김민지 기자

롯데푸드 ‘박정우효과’ 광고 300만뷰

롯데푸드는 의성군청 소속 씨름선수 박정우를 내세운 ‘의성마늘 만두’ 유튜브 광고 영상이 300만 뷰를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롯데푸드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이번 의성마늘 만두 광고 영상은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씨름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정우 선수가 큰 활약을 보이면서 업로드 약 2개월 만에 300만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김민지 기자

동아오츠카 과즙 11% 함유 ‘데미소다 청포도’

동아오츠카는 청포도 과즙 11%를 담은 저탄산 과즙음료 ‘데미소다 청포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출시를 기념해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임직원 1000 명을 대상으로 데미소다 청포도 샘플링 이벤트도 가졌다.

동아오츠카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청포도 에이

드 음료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탄산과 청포도 과즙을 더해 청량감과 과일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저탄산 과즙음료를 선보였다.

데미소다는 지난 2017년 데미소다 자몽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맛을 선보임으로써 사과, 오렌지, 레몬, 복숭아, 자몽, 청포도 등 총 6가지 맛의 라인업으로 확대됐다.

/김민지 기자

LS산전,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배선용차단기·자동화 핵심제품 본상

LS산전이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LS산전은 차세대 전력 솔루션 Susol Smart MCCB(수술 스마트 배선용차단기)와 자동화 핵심 제품 iXP2가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 '프로덕트-인더스트리/툴'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립 디자인 기관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매년 우수한 디자인에 상을 주는 행사다.

이번에 디자인 상을 수상한 '수술 스마트 MCCB'와 'iXP2'는 LS산전 주력 사업인 전력과 자동화 솔루션을 대표하는 제품이다.

수술 스마트 MCCB는 공장이나 빌딩 내



LS산전의 자동화 핵심 제품 iXP2.



LS산전

부 각종 장비 및 주요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을 사전에 차단해 화재 사고를 방지하는 핵심 전력 기기다. iXP2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들을 통제하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사용자와 기기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HMI 제품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산업용 기기로는 드물

게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톱25에 선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은 물론 디자인 경쟁력을 공식 인정 받았다"며 "고유의 PI(Product Identity)를 확대 적용해 압도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부동산 규제와 풍선효과



기자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부르고 있다. 경기도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시작된 풍선효과가 수·용·성 지역에 나타났다.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처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같이 개발호재를 품은 인구 밀집 지역이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말 12·16 대책 이후 2개월만에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출규제나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으로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지역의 집값까지 두루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이렇다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역 표심을 우려한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집값이 치솟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를 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크다.

12·16 대책 이후 전세시장이 광풍을 피자 대출이 막힌 매매 실수요자는 전세로 발을 돌리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매매 시장에서는 고가 주택 호가가 수 억원씩 떨어지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들며 높은 가격 따라잡기인 이른바 '갭 매수기'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고서는 풍선효과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자가 모인다. 인구밀집 지역에 규제를 하기 보다는 부동산 수요가 급등하는 원인을 분석해 지혜로운 공급정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 /ywj964@metroseoul.co.kr

현대글로벌비스 스타트업 아이디어 발굴... 최대 1억 지원

현대글로벌비스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트 무브 챌린지'에서 5개팀에 총 상금 1200만원과 상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글로벌비스 종합물류연구소 관계자와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 3개사의 임원들이

난달 현장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통해 서류 심사를 통과한 10여개 팀 가운데 입상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스타트업 '오토 하우머치' 팀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동차 리스 및 중고차 렌탈 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해 혁신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신규사업화 가능성을 인정 받은 팀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



이현목 현대글로벌비스 종합물류연구소장(왼쪽 두 번째)과 강제호 오토하우머치 대표(왼쪽 세 번째)가 17일 오후 현대글로벌비스 본사에서 최우수상 수상 기념사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한다. 선정된 팀은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19일 (음 1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돈을 사랑으로 대해보라. **48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60년생** 에디슨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2년생** 아예 본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84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 37년생** 외출 시 상비약을 먼저 챙겨라. **49년생** 순진하게 고임에 넘어가지 마라. **61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3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85년생** 숨은 실력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 38년생** 감 나라 배 뇌라 간섭하지 마라. **50년생** 좋은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62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74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하자. **86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 39년생**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인색하지 마라. **51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3년생** 좋은 친구를 찾고 좋은 친구가 되자. **75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라. **87년생**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 40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52년생** 싫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64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76년생**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다. **88년생** 이직보다는 부족한 공부 하라.
- 41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53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 **65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77년생** 노력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89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 42년생** 사람을 봐가며 따라라. **54년생**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 **66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78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90년생** 아름다운 시를 좋아한다고 다 시인이 되지는 않는다.
- 43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55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67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지치지 않게 한다. **79년생** 봄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상승생성. **91년생** 근거 없는 구설이 발생.
- 44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56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8년생** 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80년생** 물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92년생** 가족의 평가가나의 성공을 이끄는 지팡이.
- 45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57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다치게 한다. **69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81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걸 명심. **93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 46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58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온다. **70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꽃이. **82년생** 진실을 알아도 떠들지 말아야. **94년생** 슬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내라.
- 47년생** 건강간 신체에서 보석비가 내린다. **59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1년생**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르다. **8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95년생** 남의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라.



김상희의四季

예측의 공식

전 세계 뉴스 방송의 말미엔 항상 일기예보가 뒤따른다. 날씨가 맑을지 흐릴지 기온은 하루 중에 어느 정도의 높낮이가 있는지, 비가 오고 바람은 얼마나 강하게 불지 등을 아는 것은 활동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옛사람들은 정확한 일기의 예측을 위해 작은 벌레떼들이나 새들의 움직임도 하루루 보지 않았다. 전날 밤 구름에 달무리가 생기는지 아닌지 등의 무수한 관찰과 경험치에 의해 일정한 예측치를 추정해 내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날씨의 변동치를 예측하는 것처럼 인간 운명에 예측을 가능케 하는 어떤 로직(LogIc)을 발견해 냈다. 이는 드러나는 자연현상의 원리가 인간세계에도 통용된다는 직관이 발휘된 것이다. 인간 역시도 자연 일부분이며 따라서 만물에 공통되는 생성과 변화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공고한 통계학을 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역(易)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된다. 왕좌의 호랑이를 탄생시킬 수 있으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삶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기를 읽을 수 있다면 피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람막이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 선인들이 선험(先驗)하였기에 후손들에게 역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여 삶의 여정에 활용하도록 한 유산이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과도 다른 것이며 무조건 기적을 기대하는 어리석음과도 다른 것이다. 역(易)은 미신이 아니다. 삶의 여정 현재에 적용되는 사회공학이요 사회과학이다. 궁극한 사람들이 상단을 오면 현재 운이 좋은 대운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게 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3	4		1	6
6		1		4
				5
5				
1		2		6
6	2		4	3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1	9	
7	4	9		2	3	8	
1		7	8		6	2	
8	3		6			9	
6	7	1			2	4	3
	4		3		8	5	
	3	9	2	1		7	
2		7	4		8	9	6
5		6			4		

정답

1	8	4	9	2	9		
9	9	8	2	4	1		
2	4	9	1	9	8		
8	9	2	9	1	4		
4	2	1	8	9	9		
9	1	9	4	8	2		
2	1	4	6	8	9	8	
9	8	6	8	4	1	2	
2	8	9	1	2	9	6	8
9	9	8	2	8	1	2	4
8	4	2	9	6	8	1	9
1	6	2	4	9	2	8	9
4	2	9	8	8	2	9	6
8	9	8	2	1	6	4	9
6	2	1	9	4	9	8	2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8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1호



故유동룡 선생

경북 경주엑스포공원에 자리 잡은 경주타워. /연합뉴스

“공공기관 지재권 침해 첫 사과 경주타워 세계적 명소 만들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 현판식서 소회
지적재산권 이해 부족 반성
유족에게 진정성 담아 현판식**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 경주엑스포에서 열린 경주타워 현판식에서 고(故) 유동룡 선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경주가 문화예술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엑스포는 지난 17일 건축가 세계적인 재일 한국인 건축가 **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을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로서 명예를 회복시키고 12년간 이어져 온 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 지사는 이날 “그동안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이해부족에 대해 반성한다. 이번 행사는 경주타워가 세계적인 건축가(유동룡 선생)의 작품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 명품 건물이 세계적인 건축물임을 알리면서 (경주의) 자원도 되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현판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경주타워와 건축가 유동룡 제막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네번째),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오른쪽에서 네번째),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경주엑스포

이 지사는 “지난해 도지사가 된 뒤에 경주타워와 관련된 사연과 유족들의 불만을 듣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우리 잘못이다. 사과를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현판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주타워 현판식은 정부·공공기관이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최초로 한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우리나라 풍토가 잘못 형성됐었다”고 반성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에 공공건축물과 관련해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주타워 현판식을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

해)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총괄건축가와 함께 건물 하나하나를 명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하는 중이다. 현판식도 그 일환 중 하나”라며 경주를 비롯해 경상북도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지사는 현판식이 끝난 후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경주(경북)=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경주 근처 오기 싫었지만 아버지 명예 찾게 돼 기뻐”

故 유동룡 선생 장녀

엑스포의 새로운 현판 제작 협의에 성명표시 소송 취하하고 마음 돌려

“사실 경주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습니다” **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이 경주타워에 올라 처음 건넨 말이다. 경주타워 아래 펼쳐진 경주 전경을 바라보던 유 소장은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이렇게 일을 잘 해결하고 오니 좋네요”라며 미소지었다.

지난해 유동룡 선생의 일대기와 건축 철학을 다룬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가 개봉하면서 경주타워 표지석이 화제가 됐다. 5년간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서울 고등법원의 선고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이타미 준)임을 명시한 표지석이 지난 2012년 설치됐다. 하지만 경주타워 우측 바닥 구석에 위치한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데다 표시 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져 논란이 됐다.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타워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보고받고 원 디자인에 대한 인정과 적극적인 수정조치, 저작권자인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 등을 지시했다. 문화엑스포측에서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에게 연락을 시작한 지난해 9월 유가족은 이미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철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엑스포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이 현판식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경주엑스포

측은 바닥에 설치돼있던 표지석을 곧바로 철거하고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과 새로운 현판 제작에 따른 내용 및 디자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노력에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은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2019년 10월 취하했다.

유이화 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기쁜 날이 있으려고 그동안 긴 싸움을 했나 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저희 아버지 유동룡 건축가는 지역의 정통성과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현재 문화의 흐름과 시간성을 담아내는 그런 열매로서의 건축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철학을 늘 말씀하셨다”며 “비록 원안 그대로 완공이 됐다면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의 경주탑이 됐을 거라 확신을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그래도 아버지의 건축 철학만큼은 경주탑을 통해서 전달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인터뷰 |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 정다운 감독

“분노 누르며 촬영... 힘 보탠 것 같아 영광”

“당시엔 정말 터져 나오는 화를 억누르며 촬영했다. 그러나 오늘(경주타워 현판식)은 경주만의 축제일이 아닌 문화 예술인에게 상징적인, 행복한 날이다”

지난 17일 경주엑스포에서 열린 경주타워 현판식에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이 참석, 현판식이 열리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표현했다.

지난해 개봉한 정다운 감독 작 ‘이타미 준의 바다’는 세계적인 재일 한국인 건축가 **故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의 일대기와 건축철학을 다뤘다. 극장 관객 2만 3000명을 동원하며 국내 독립영화로서는 흥행에 성공, 20회 전주국제영화제, 여성영화인상다큐멘터리 상을 비롯해 수차례의 영화제 상을 받았다. 해당 영화가 이슈가 되면서 유동룡 선생과 경주타워 간의 저작권 분쟁도 함께 관심받았고, 경주엑스포 측에서 유동룡 선생 유족에게 먼저 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정 감독은 “영화를 통해 이타미 준과 경주타워 이야기를 이슈화시켰는데, 이번 현판식이 열리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것 같아 영광”이라며 “평판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속상했다. 돈을 갈끔하게 처리했지만, 사실은 속상해하면서 촬영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기에 감정을 내리누르며 촬영했다. 그런 고생의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밝혔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변화할 거라 믿



(왼쪽부터) 김종신, 정다운 감독 부부.

/조효정 기자

**故유동룡 일대기·건축철학 다뤄
국제영화제서 수상 등 흥행 성공**

**‘할 수 있구나’ 문화의 힘 느껴
문화예술인에게 상징적 의미**

았냐’는 질문에 정 감독은 “바뀔 거란 기대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바뀔 줄은 몰랐다”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는 “영화를 지난해(2019년)에 만들었는데, 영화 상영이 두 달 간 진행됐는데, 그 사이에 명판 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할 수 있구나’를 떠올리며 문화의 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감독은 “이번 현판식은 유동룡 선생님은 세계적인 거장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선생님께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후배 건축가들에게 좋은 본보기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다. 결론이 잘 나면 후배 건축가들에게 힘 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경주타워 현판식이 건축가를 비롯한 문화예술인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사과는 정부·공공기관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사과한 첫 번째 사례다.

마지막으로 정 감독은 “현판식 이후로도 유동룡 선생님과 관련한 영상을 계속 제작하겠다. 유동룡 선생님은 자연과 건축과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품고 온 철학을 가진 건축가였다. 앞으로의 목표는 그의 철학을 담아가며 감독관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경주타워가 이타미 준의 또 하나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며 많은 분이 경주엑스포와 경주타워 방문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저축은행 스마트뱅킹 GRAND OPEN!



이용가능상품

•대출상품

- NH직장인행복대출
- 온라인햇살론
- 사잇돌2간편
- 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상품

- NH행복플러스보통예금
- 중도해지Good정기예금
- 비대면정기적금



지문, 패턴, 간편번호로 빠르게!



전화번호 이체로 간편하게!



영업점 방문없이 제증명 신청, 발급 서비스 OK!



어르신들 위한 큰 글 조회, 이체서비스!



모바일로 간편하게 채팅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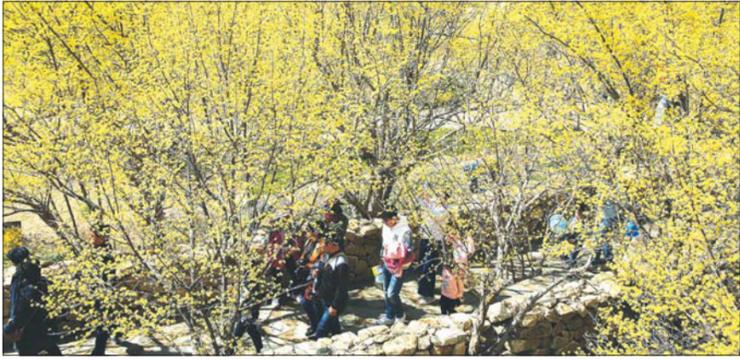
NH저축은행 검색해보세요!



고객센터 : 1588-5191(예금), 1566-9574(대출) | www.nhsavingsban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9호 (2020.02.05)

NH저축은행



구례산수유축제

구례산수유꽃축제, 예정대로 개최

(내달 14일)

정부방침 따라 방역조치 충분히 마련
개막식·축하공연 없이 체험위주 진행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위기를 맞았던 대표 봄꽃축제인 '제21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다음달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집단행사를 전면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충분히 마련한 후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17일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올해 구례산수유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호흡기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개막식과 축하공연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산수유꽃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마련과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산수유꽃축제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전남=양수영 기자

영암 F1경주장, 레저스포츠 파크 조성

레이싱 관람·레저체험 한번에

수익 콘텐츠 개발·여가문화 선도가족·어린이 대상 재방문율 제고 RC카 체험·VR체험관 등 설치

F1국제자동차경주장에 레저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F1자동차경주장의 유휴시설·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카트장 인근에 35억원을 들여 레저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

레저스포츠파크는 젊은이들이 '끼와 재능'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익 콘텐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가족, 어린이 등 타깃층 발굴로 재방문율을 높여 수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젊은이들을 위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드론연습장, 드론축구장, 곡선형 질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 날인 24일 오전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결승전에 앞서 제네시스 쿠페가 출전하는 '현대시리즈' 서포트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와이어, RC카 레이싱 체험, 네트어드벤처 VR체험관 등을 설치한다.

어린이와 가족 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키즈드라이빙 체험시설, 발물 놀이터 등도 들어선다.

전남도는 오는 3월 공사를 발주해 10월 중 오픈 계획된 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F1경주장이 자동차경주와 레이싱 등 전문가들의 활용도는 정점을 찍고 있으나 앞으로 청소년, 가족단위 일반인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온라인커뮤니티, SNS를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동네방네

보성군 무상교복사업,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보성군은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에 이어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과 에듀 택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상 교복 지원은 지난해 예산 3200만 원(도교육청 50%, 군 50%)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105명)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시행한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며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농어촌 학생 통학지원을 위해 미력초·노동초 등 6개 학교에서 에듀 택시 사업이 시작된다.

에듀 택시는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통학거리가 2km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교(21명)에 지원될 계획이다.

/전남=문병환 기자 m8527188@

여수시, 희망 바우처 카드 가맹점 모집

3월 시행... 1억7000만원 투입

여수시가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 바우처 카드를 지원함에 앞서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은 3월부터 시행되며,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및 만 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연 8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현재 여수시에는 다문화 가족 2천30명과 북한이탈주민 242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는 희망 바우처 사업에 1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김용환 기자 jiacocom@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순항

측량·등기 무료 정리... 토지이용가치 ↑

2030년까지 사업비 130억 투입
경계·면적 새로 조사, 분쟁 해결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분명해 농사짓기가 불편한 땅은 반듯한 땅으로! 도로가 없던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다른 사람의 땅에 지어졌던 집은 경계를 정리하면서 쓸모 있고 값진 땅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곡성군은 최첨단 측량 장비와 기술로 오차 없는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경계로 인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측량 비용부터 토지대장 및 새로운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하는 선제적인 지적 행정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이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발생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종이 위에 정리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토지의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사인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장비와 기술력으로 토지를 새롭게 측량해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최신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새로 조사 및 측량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성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다. 첫해에는 입면 종방지구 554필지 29만㎡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곡성 대평지구 932필지 36만㎡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맹지 해소, 건축물 저축 해소, 현실 경계 정비 완료 등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2018년 사업지구인 오곡 덕산지구(387필지, 29만㎡)와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는 오랜 조사 끝에 지난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하여 경계를 결정했다. 금년 말에는 2019년 사업지구인 곡성 구원지구 754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인 곡성 신기 1지구 및 죽곡 용정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현재 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토지 필지별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무안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기업모집

기업·청년 1인당 4년간 2000만원

전남 무안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0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4년간 1인당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참여대상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 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지원금은 1년 차에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이 3개월간 지급되고, 2년 차에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3년 차에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4년 차에는 500만 원(청년 500)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4대 보험 가입·체납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3월 20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8 | 해질 / 18:15

2월 19일 (수)
음력 : 1월 26일

수도권 날씨
-2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6/9, 동두천 -5/9, 가평 -6/9, 피주 -6/8, 서울 -2/9, 양평 -5/10, 인천 0/8, 수원 0/9, 용인 0/9, 평택 -4/10, 백령도 4/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코로나19에 감염된 서울경제 살리려 22조 신속집행

방역강화등 3개 분야 15개 사업
올해 재정 62.5% 상반기 집행
중소 제품 구매에 2.5조 투입
코로나19 공공일자리 2700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DDP패션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재정 35조805억원의 62.5%인 약 22조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소비·내수 진작, 사업장 방역 강화, 피해 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경기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반기에 21조9043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조기 집행한 15조3787억원에서 6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시는 시민 접촉 기관인 자치구로 가는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해 확대재정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활성화 등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올해 공공 구매 예산의 60%인 2조52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쓸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 일자리 2700개를 만든다.

일단 전통시장 방역에 1000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시내 35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대대적 방역을 벌여 '안심클린시장'을 조성한다.

2차로 모집할 1700명은 관광업, 소상공 업체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 위주로 뽑아 기존의 공

공근로에 추가로 투입한다. 불안함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배송 서비스 적용 시장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늘린다.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지금의 2배인 100만원으로 올린다. 적용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말까지다.

상품권은 현재 구매 시에만 제공하는 할인을 사용 시에도 2~5%가량 얹어주는 일종의 '캐시백' 제도를 도입, 실질적 할인율을 최대 15%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한다. 확진자 동선 상 업체 정보 공개로 피해를 봤거나 강제·자가격리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점심 기준 하루 2500여명이 이용하는 시청사 등의 구내식당 의무 휴업

을 월 1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인근 식당가의 영업을 돕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박람회, 전통시장 축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MADE)를 활용, 수출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오는 6월 베트남 하노이에 '서울메이드 스트리트'를 조성하고 판매·전시관과 문화체험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북·남미 지역에도 팝업 스토어 등을 열어 서울메이드를 알리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비심리가 움츠러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중앙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방역과 예방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일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문턱 높아 빛 좋은 개살구” 자금 융통 당장 시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간담회’
소상공인 “현실적인 도움 필요”
서울시, 중소기업에 5000억 융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서울시 등이 내놓는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중구 DDP패션

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기업 대표, 상인, 관련 단체 임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파리바게뜨 성신여대점 유성원 대표는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미 담보가 잡혀 있어서 보증이 안 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에게 무슨 담보가 있나. 무담보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참가자는 “대출을 해준다기에 상

담을 해봤는데 기존 대출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대출해준다더라”며 “사실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이 급하다. 정책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준혁 월드컬처그룹 대표는 “긴급 자금 지원도 다른 대출을 받을 때와 똑같다. 이런저런 서류와 구비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박중현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협의회 회장은 “동대문 패션 상권은 매출 40~70%가 감소했다”며 “긴급자금대출 등 대책을 세워준 것은 고맙지만, 상담 일정이 너무 지연된다”고 말했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김지영 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 대출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문턱이 높다.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시는 소상공인에게 1%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설, 신용보증재단 상담 인력 증원, 대출 심사 간소화 등을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안전기반시설에 1.3조 투입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사업에 총 1조3188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안전·기반 시설 분야에 161건의 용역과 101건의 건설공사(10억원 이상)가 계획돼 있다.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의 안전분야 78건(216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4건(396억원) ▲기반시설 설계 9건(878억원) 등 총 161건이다. 사업비는 1490억원이다.

시가 발주할 건설공사는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의 안전분야 27건(669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3건(1341억원)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8건(9574억원) ▲내진 보수보강 공사 등 기타공사 3건(114억원) 등 총 101건이다. 1조1698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은행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4506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서울시청. /손현영 기자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다.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1명이다.

시는 올해 발주할 용역과 건설공사의 사업내용·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관악구 도림천,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 관악구는 도림천 서울대 앞 구간의 생태복원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서울대 정문 앞에서 동방1교까지다. 도림천 복원 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됐으나, 관악산공원 등산로 입구에 해당하는 이 구간은 미복원 상태여서 관악산과의 생태축이 단절돼 있었다고 관악구는 설명했다.

관악구는 서울시비를 확보해 2022년까지 331억원을 이 사업을 포함한 ‘도림천 특화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교량 특화사업 ▲관천로 도로 개선을 통한 초록풍경길 조성 ▲관천로 플랫폼 설치 및 운영 ▲생태경관 개선 ▲통수 단면 확장 ▲도림천 정비 및 시설관리 방안 수립 ▲도림천 브랜드화 등이 포함됐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 수생식물 식재, 교량 야간조명 설치 등을 통해 도림천을 주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관악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정비 완료 후 도림천 모습. /관악구

생태축을 완성한다는 것이 관악구의 구상이다.

관악구는 연말까지 도림천을 지나는 신림교와 신림2교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고 경관조명과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는 상반기에 봉림교부터 우방아파트까지 관천로 구간을 ‘초록풍경길’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해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기존 4~6차로를 통행량에 맞게 2개 차로만 남기고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보도 폭을 넓힌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반지하 맞춤형 집수리 추진

서울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반지하 주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기존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가구당 120만원 지원)에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가구당 200만원 지원)을 결합해 저소득층 반지하 1500가구 이상에 가구당 최대 3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단열 시공, 보일러·에어컨·제습기·창문 가림막 설치 등에 사용된다.

시는 매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 대상의 30% 이상을 반지하 주택으로 선정해왔는데 올해는 재단과 협업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시는 올해 400가구 이상, 에너지재단은 1100가구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수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자치구를 통해 수시로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산업] 구광모 LG대표 현장경영 돌입 '디자인 경영' 고배 06



Life

[저작권자 되찾은경주타워]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주타워 세계적 명소로 만들 것" L4



서남권의 '허파'... 노인에게는 사랑방, 아이들에게는 놀이터

되살아나는 서울

보라매공원

서울 서남권엔 공원이 없다. 공원 면적 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줄 세워보면 하위 20%(5개)에 서남권이 3개나 포함돼 있다. 2018년 기준 금천구(2.21km²), 양천구(2.91km²), 영등포구(3.09km²)의 공원 면적을 다 합쳐도 서초구(16.04km²)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으로 따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한 1인당 최소 공원면적을 9m²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 25개구 중 40%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남권에 포진해 있다. 양천구(6.2m²), 강서구(7.2m²), 구로구(7.6m²), 영등포구(7.7m²), 금천구(8.7m²)가 그 주인공이다.

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의 허파로 불리는 보라매공원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자리해 있다. 1958년부터 공군사관학교로 사용되다가 1985년 서울시에서 인수해 공원으로 조성, 이듬해 5월 개장했다. 공원 이름은 공군사관학교 때의 상징인 '보라매'에서 따왔다. 총 면적은 42만4106m²이다. 보라매공원의 주요 시설은 ▲잔디광장 ▲에어파크 ▲음악분수 ▲연못(옥만호)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인공암벽등반대 등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약자 포용하는 공원
흰 눈이 펄펄 내리는 지난 17일 오후 보라매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4번 출구로 나와 닭꼬치 냄새를 따라 문창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5분(336m)을 걸었다. '보라매공원 남문'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나왔다. 평일 오후라 공원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털모자와 장갑, 두툼한 패딩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었다.

시민 최정순(56) 씨는 "보라매공원에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도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 참 좋다"고 말했다.

현재 보라매공원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립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경찰서보라매파견소와 2010년 5월 개관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공원에서 옛 공군사관학교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비행기 8대가 전시된 에어파크다. 이날 보라매공원에서 에어파크보다 인기가 많은 장소는



지난 17일 오후 시민들이 보라매공원 남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김현정 기자



지난 17일 오후 보라매공원 안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녹지 부족한 서남권에 42만m² 공원 에어파크·인공암벽 등 놀거리 가득

청소년수련관 등 11개 기관 입주 공원 내 고령자 위한 공간도

공원 곳곳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산책 등 마스크 쓰고 일상 이어가

옥만호 왼쪽에 설치된 아담한 규모의 비닐 하우스였다. 지하철 2량 정도 크기의 비닐 하우스에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이 웅기종기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묻는 말에 이모(79) 할아버지는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건 무료함"이라면서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고 입구에 손세정제가 있어 괜찮다"며 빙긋이 웃으며 답했다.

비닐 천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사랑방 앞엔 붉은색 글씨로 경고문구가 뿔뿔이 쓰여 있었다. '마스크를 착용할 것', '장기알과 판은 꼭 닦고 사용할 것', '손을 씻고 장기를 둘 것' 등을 지켜달라는 내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당부의 글에는 "매일 자체적으로 장기판과 내부를 소독하고 있습니다"라며 "이곳 봉사자가 수고함"이라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했다.

◆신종 코로나가 바꿔놓은 공원 풍경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63) 씨는 "보통 이 시간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스크린골프를 칠

시간인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아서 갈 수 없게 됐다"며 "맨날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바람 좀 쐬 겸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공원 곳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행동 수칙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플래카드에는 '1. 마스크 착용, 2. 손씻기(청결), 3. 기침 예절' 등이 적혀 있었다.

취업준비생 이종우(25) 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거의 매일 공원에 온다"면서 "전날(2월 16일) 서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오늘은 공원이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약간 적은 뿐 큰 차이 없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지난 17일 공원에서는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일상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만 빼꼼히 내놓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날 공원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인지 하얀색 보건용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거나 방한용 배워머로 얼굴 전체를 핑퐁 둘러 싸맨 이들이 많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